

대한언론상 '영광의 얼굴' 기리다

언론사 사장등 대거참석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달 25일 오후 5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19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CBS 이재천 사장, KBS 조대현 부사장, 한국일보 이상석 부사장등 각 언론사 사장과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 동아일보 배인준 주필, 심규선 편집국장, 이정희 CBS 보도국장, 시사인뉴스 이학성 편집국장등 언론사 간부들이 다수 참석했다. 올해의 대한언론상은 기획취재부문에서 동아일보 이철희 정치부 차장 등 6·25 60주년 특별기획취재팀과 국군포로문제를 집중 조명한 KBS 박승규 부장등 탐사보도팀, 그리고 환경미화원문제를 밀착 취재한 CBS 김효은기자 등 사회부 취재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논평부문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관련 논평이 돋보인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실장이 수상했다. 동아일보 기획취재팀은 '6·25 참전 16



2010 대한언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언론사 사장 및 본회 회장, 고문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개국을 가다' 시리즈를 통해 참전 16개국 현지에서 참전노병들을 만나 6·25전쟁 회고

들을 생생하게 보도 했으며 KBS 탐사보도팀은 6·25전쟁 중 납북된 국군 포로 중 시베

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간 참담한 실상 등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게 보도했다. 그리고 CBS 사회부 취재팀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실태를 5부작으로 집중 취재 보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근무환경 및 보수 체계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하자 "북한이 유력한 용의자다"라는 칼럼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논설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원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역대 대한언론상 수상자들이 대한언론상의 권위와 신뢰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 해 대한언론상 수상자들 역시 이 시대 참 언론의 표상이라고 치하했다.

수상자 명단

◆기획취재부문
동아일보 : 김영식, 신석호,

윤상호, 이기흥, 이철희, 조수진 정치부차장, 고기정, 김승현, 류원식, 박민혁, 유성운, 윤원준, 이유중, 이재명, 황장석기자, 최영해, 이태원 워싱턴특파원

KBS : 박승규 사회2부장, 연규선, 유혁근기자,

CBS : 최인수, 김효은, 이대희, 김정남 사회부기자

◆논평부문 : 강병태(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대한언론상 규정 개정

대한언론인회는 대한언론상 규정 중 일부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1) 제4조 (수상자 결정) 매년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가 후보자 공모 시한을 정해 결정한다.

(2) 제5조(시상) 대한언론상 시상식 날짜는 당해 연도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3) 제6조(시행) 제7차 개정 2010년 9월 28일을 추가



본회 임원진 고 황장엽씨 빈소조문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10월 13일 강남 현대 아산 병원 장례식장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사진) 이날 조문에는 홍원기 회장을 비롯, 김은구 윤익한 한기호 회장상담역과,

김성배 윤기병 부회장, 도준호 이사, 이보길 편집위원이 참석했다.

〈사진·이보길 편집위원〉

언론산업 ‘소’는 누가 키워야 하나

요즘 “소는 누가 키우고?”라는 유행어가 있다. 어느 TV 개그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만들어내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는 이 유행어를 ‘엉뚱한 데 신경 쓰다가 막상 본질을 놓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최근 한국광고주협회가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미디어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놓고 국내 유력 신문사들이 내놓은 해석들을 보면 “이러다가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걱정이 절로 든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문 구독률이 10가구 중 3가구 미만으로 떨어졌고 매체 선호도에서 신문은 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들은 이 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데 급급했다. 여러 조사 항목에서 신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A일보는 “2위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B일보는 “서울지역에서 구독률 1위”라고 썼다. 한 경제신문은 구독률 등에서 다른 유력지와 격차를 보이자 “스마트족과 통했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뉴스미디어, 즉 언론산업에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모든 전제가 바뀌고 행태가 바뀌고 게임법칙이 바뀌었다. 전통 언론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변화일 수도 있다. 핵심은 언론매체만이 아니라 독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이제 누구라도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때문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누구나 미디어가 되는 소셜 미디어 세계를 열어놓았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기존 언론매체와 뉴스를 받아 읽던 독자들 사이의 관계를 바꿔 놓았다. 기왕에 뉴스제공자와 뉴스소비자의 입장에 있던 양측은 소셜 네트워크가 몰고 온 변화에 대해 양극단에 서 있다. 뉴스제공자는 빼앗기는 입장이고 뉴스소비자는 새로운 위상을 맞이했다. 빼앗기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건 위험하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져오는 변화는 고집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선택은 빼앗기는 쪽에 있다. 기본을 깨트려야 한다. 날이 갈수록 급격히 위축돼가는 신문시장에서 점유율이 누가 1등이냐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는 ‘소셜’이다. 소셜 네트워크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뉴미디어냐 아니냐’는 의미를 잃었다. 이제는 ‘소셜 미디어냐 아니냐’다.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는 모든 매체에게 기본이 돼버린 마당에 이제 뉴스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아가 언론매체를 소셜 네트워크와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의 개념과 형식, 기자의 기능과 역할, 뉴스룸의 구성과 임무, 광고의 성격과 형태 등 뉴스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틀어 모든 요소와 과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언론매체와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뉴스에 대한 독자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언론산업은 자본집약산업이었다. 신문과 방송이 지배하던 시절, 신문사나 방송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필요했다. 신문사의 경우 운전기 구입과

취재인력 고용 뿐 아니라 보급망 확보에도 엄청난 자금이 들었다. 뉴스를 생산하고 신문을 인쇄하는 비용 뿐 아니라 신문사들은 주요 거점에 보급소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임차해야 했다. 방송사는 더욱 문턱이 높았다. 방

소셜미디어 시대 기존매체 붕괴위기 소비자 행태 정확히 파악 뉴스공급을

송 장비를 갖추는 데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에는 신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력과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방송 채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나 TV방송의 채널은 제도적으로 과점체제였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 같은 언론산업의 과점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 처음 깨져나간 부분은 뉴스의 생산시스템이었다. 누구든지 PC만 가지면 고성능 워드프로세서에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게 됐다. 이 PC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자신이 쓴 글을 월드 와이드 웹에 직접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섰다. 인터넷에 연결된 PC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인터넷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신문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다. 그것도 리얼타임 뉴스로 무장한 채. 그러나 인터넷신문 시대에는 더욱 심각한 과점체제가 나타났다. 포털 중심 체제다. 거대 포털이 탄생하면서 절대다수 독자들의 눈동자를 끌어 모든 포털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뉴스를 유통시키는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인터넷신문들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이 뉴스를 끌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존폐가 갈리는 형편이 됐다. 사실상 포털은 인터넷신문들이 생산한 뉴스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집적(aggregation)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포털 페이지에 표출되는 뉴스의 가치나 비중을 정하는 권한을 놓고 포털과 인

특별기고



공 훈 의

- (주)소셜 뉴스 대표이사
- 위키트리 발행인

터넷신문 사이에 일어난 논란은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개별 인터넷신문들이 생산한 뉴스를 한 데 모아둔 상위 개념의 또 다른 인터넷신문일 뿐이었다. 소셜 네트워크는 독자들로 하여금 포털을 우회할 수 있게 했다. 뉴스를 읽기 위해 굳이 포털을 찾지 않아도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같은 관심을 가진 그룹의 친구들이 추천해준 뉴스들이 줄줄이 걸려있다.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이 앞에 내세운 뉴스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에 가장 알맞은 뉴스를 가만히 앉아서 골라볼 수 있다.

또한 내가 읽은 뉴스 가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 뉴스는 클릭 한 번으로 보내줄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에 직접 접속해서 원하는 뉴스를 찾아내 읽어야 했던 과점체제의 불편한 소통방식을 깨끗이 우회할 수 있

소셜미디어 시대 기존매체 붕괴위기 소비자 행태 정확히 파악 뉴스공급을

도록 해주었다. 이는 인터넷신문들이 생산한 뉴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뉴스를 써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면 곧바로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뉴스 생산과 유통체계를 만들어냈다. 뉴스의 생산과 유통은 이제 모든 사람 개개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언론매체나 포털이 누리고 있던 뉴스를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는 그렇게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뉴스를 생산하는 인력의 희소성도 무너졌다.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긴장해야 한다. 아니,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언론사 뉴스룸 내부보다 바깥에 훨씬 더 많다.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역시 뉴스를 밖에 절대적으로 많다.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구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전통 언론매체가 과점된 상태에서 언론매체에 접근조차 어려웠다. 접근이 됐다 하더라도 기자의 관심을 끌고 데스크의 시각에 들어맞고 또 언론매체의 성향에 의해 걸러지기까지 첩첩산중을 통과해야 했다. 그렇게 보도된 뉴스가 얼마나 확산이 될지, 그 언론매체의 보급 능력은 또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과점체제가 갖고 있던 수많은 관문들이 강그리 사라졌다. 이 뿐 아니다. 새로운 인터넷 상의 플랫폼들은 지금까지 어느 언론매체도 시도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기능까지 내놓고 있다. 아무 때나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폴(poll)

기능에 사진과 음성을 합성해주기도 한다. 이제는 스마트폰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플랫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도 상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주는 ‘맵(map)’ 기능, 인쇄된 지면과 인터넷 상의 URL을 바로 연결해주는 QR코드, 심지어는 지면이나 PC화면 위의 그림을 이용해 스마트폰 상의 증강현실을 접목시켜주는 플랫폼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금이나 설비나 플랫폼이 아니라 상상력과 아이디어 뿐이다. 전통 언론매체가 누리고 또 지키고 있던 미디어의 과점체제는 이토록 철저히 깨졌다. 진입장벽도, 인력의 전문성도, 설비나 플랫폼도, 보급 채널까지 전통 언론매체들은 모든 장벽이 무너진 채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무한 경쟁에 맞닥뜨렸다. 기존 언론매체는 이제 가진 것이 없다.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서 수 십년에 걸쳐 쌓아왔던 과점적 지위가 졸지에 무너져 내린 현실은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적응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잔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통 언론매체의 제호마저 제 값을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됐든 중앙, 동아일보가 됐든 갖 새로 생긴 인터넷신

문이 됐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독자들은 신문 제호를 보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그룹이 추천해준 링크의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주제면 클릭해 본문을 읽는다. 본문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다른 친구와 공유하고 아니면 닫는다. 그 과정에 그 뉴스가 어느 언론매체의 것인 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 그리고 내 친구가 추천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언론매체의 제호를 먼저 찾는 뉴스소비자는 이제 없다. 언론매체는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역사가 오래거나 짧거나, 전통매체거나 인터넷매체거나 소셜 네트워크 상의 뉴스소비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뉴스 콘텐츠가 그들에게 재미 있고 가치 있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그래서 모든 언론매체에 똑 같은 기회를 준다. 모든 언론매체가 스타트라인에 다시 정렬한 셈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기존 언론매체들은 스타트라인에 다시 서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기존 중소형신문이나 지방신문, 인터넷신문할 것 없이 모든 언론매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소셜 네트워크는 전통 언론매체가 구축했던 과점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모든 언론매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과제는 소셜 네트워크의 속성과 그 속에서 뉴스소비자들의 행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뉴스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이 키워야 할 ‘소’는 지금 여기에 있다.

安保는 포퓰리즘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대 세습이라는 인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는 동시에, 세습의 성공을 위해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전쟁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일으키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천안함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북한 군부 내의 핵심 서클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서 일으킨 야심 찬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군함을 순식간에 격침 시킨 김정은이야말로 '대장 김'이 아닐 수 없다고 선전하고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다. 권력 세습의 대열에서는 탈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 정통하게 알고 있을 김정남이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왜 김정은이가 그 같은 일을 하게 놔두었냐며 추궁조로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부에는 천안함 격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30%도 넘는 괴이한 지경에 도달했다. 국가

의 안위 문제 보다는 정치권력 정파적 이해 갈등 그리고 인기영합주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연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모두다 반대해야 하는 것이 배운 사람의 덕목이고 야당의 도리라는 해괴한 논리도 만연 되어 있다. 물론 지식인들과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폭압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항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내부, 즉 국민들을 향해 행사되는 권력은 잘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억압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 국민을 핍박하는 독재 권력이라고 된다는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야당은 외부로 향해 행사되는 대한민국의 권력, 즉 주권마저도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권력은 내부로 향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로 향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요 도리다. 그러나 외부로 향하는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

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외교정책은 온 국민이 단결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런 대한민국도 야당과 여당 사이에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일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 안보에도 여야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북한보다 수 십배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게 오히려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외국에 나가 한국 정부의 발표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24개월로 환원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같은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 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국민의 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당하고 말았다. 타니샤 과잘 교수는 1816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국가안보에 실패함으로써 멸망한 나라가 무려 66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 낸 바 있

특별기고



이 춘 근

- 정치학 박사
-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훼손했다. 국민들 스스로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외국을 향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을 비방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국가적 행동이다.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반국가적 행동을

을 엄단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안보이슈조차 포퓰리즘의 맥락에서 재단하고 있는 것인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 태세를 총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몇 달간 연구한 끝에 사병 복무기간은 최소한

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우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최근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다. 21세기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은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감내한 채,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두둔했고,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지원했으며, 대를 이어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며 불량정권 북한을 두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993년 수교 이래 중국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해 왔다. 전략적 동반자란 전략의 지향 방향이 같은 나라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개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독재와 빈곤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라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대한민국이 바라

는 전략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통일에 반대하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이 저지른 일을 응징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고조치로 행하는 한미 합동 훈련조차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은 여론조사의 향방이나 시류만을 좇는 정치가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도자는 국가 대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기영합적 정책과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시급히 퇴출되어야 한다. [필자의 글]

對外的 主權행사 비난은 反國家행위 政權 차원 아닌 국가비전 제시 총력을

언론사 社友會長 초청 간담회

대한언론인회, 언론발전 정보교류등 논의

대한언론인회 회원기 회장은 지난 10월 27일 낮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각 언론사 사우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대한언론인회가 각 언론사 사우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언론사 사우회 회장들은 대한언론인회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대한언론인회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언론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수시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각 언론사 사우회 회장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영구(MBC) 김광희(동아일보) 김수웅(KBS) 김재봉(중앙매스컴) 김충한(한국일보) 이형균(경향신문) 인보길(조선일보) 임형두(SBS) 함정훈(국민일보)



천안함 이후 달라진게 무어나

동서고금을 통해 경국(經國)의 대본은 부국강병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명제와 맞붙어 가장 치열하게 열정을 불태웠던 때는 박정희시대다. 근대화로 가는 숨가쁜 몸부림 탓에 비싼 대가가 뒤따랐지만 시대정신을 담았던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화두는 오늘의 시국상황에서 더욱 합당하고도 절실한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아닐까 싶다. 구호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는 매우 또렷하다. ‘대포와 빵’을 더불어 키우자는 전략이다. 이질적이면서도 상호 보완관계인 안보강화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구가 만만한 노릇은 아니다. 나라를 살찌운다고 안보가 절로 다져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의 충만도가 성공의 열쇠다. 세상에 그럴듯한 외침은 흔하되 당찬 행동은 드문 법. 오늘날 MB리더십을 향한 목마름의 소치가 여기에 있다. 난세난사(亂世難事)를 만날 때면 이심전심 박정희 향수가 부활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북쪽의 김정일은 백성을 기아 사선(死線)으로 내몰면서도 대포 만들기에 매달려 왔다. 뽐내는 선군정치 발상의 출발점이다. ‘빵’은 큰 집(중국)에 빌어먹는 게 버릇이 됐다. 알량한 주체사상의 슬픈 초상화다. 심화된 북중(北中) 종속관계의 현주소를 밝혀주는 단면도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빵 구걸의 굴욕감을 핵 개발 완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심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세도(勢道)가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공급한 돈과 빵은 김정일의 속셈을 고무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의 북핵 사태 그 밑바닥에는

분명 대한민국 좌파정권 수장의 영향이 진하게 깔려 있다고 봐야 옳다. 한편 집권 3년차,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386 신출내기 그룹의 등쌀에 쪼그라진 빵의 몸집 되살리기에 전력투구해왔다. G20 정상회의 개최, 원전 수출, 성장세 회복 등 큼직한 흥분감도 없지 않다. 오락가락 헛스윙으로 파가운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의 ‘빵’ 키

時 論



정 재 호

· 본회 회우
· 칼럼니스트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 현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를 일필휘지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그의 위풍당당함을 에누리 없이 표출하는 대목이었다. MB의 액션(action)은 계속된다. 전문가 그룹의 안보 지략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시켰다. MB가 이제야 개성을 상실한 ‘중도 실용’을 접고 우향우(右向右)로 돌아서는 것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했다. 산만했던 안보

차리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겠는가. 김가(金家) 부자 세습체제가 작동하면서 북쪽의 호전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핵개발을 한층 다그치겠다고 큰소리쳤다. 신형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련의 사태전개에 대처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가늘다. 정치권은 천안함 폭침과 더불어 사라진 대북 쌀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이러쿵저러쿵 잡담(雜談)중이다. 한가로운 개헌 뜸들이기에 폭 빠져있다. ‘남쪽나라’의 방송은 말머리와 말끝마다 언필칭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고수한다. 귀에 못이 박혔다. ‘김정일’과 ‘국방’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고유명사로 진화한 꼴이다. 깍듯이 예를 갖춘셈이다. 이명박 ‘역도’(逆徒)라고 퍼붓는 북쪽의 험구에 함담으로 맞서자는 따위. 속 좁은 속한(俗漢)의 심술을 닮지는 주장은 아니지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기가 찰 일이다. 고전 속에 농정지시(農政知時)란 말이 있다. “농

MB의 ‘진노’ 날이갈수록 시들해져 때 놓치면 안되는 ‘農政知時’ 새겨야

우기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반면 그의 ‘대포’ 키우기 성적표를 읽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3·26 천안함 폭침 사태는 MB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섰다. MB는 5·24 선언을 통해 대북교류 전면 중단이란 강수를 선택한다. 짧은 시절 야성(野性)으로 담금질 된 승부 근성이 후끈 달아오른 기세였다. 대통령의 안보 행보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감동 현장은 단연 현충사 참배다. 방명록에 충무공의 임전(臨戰) 좌우명인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에너지를 제대로 엮는 화끈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잔뜩 조였던 나사가 설설 풀리기 시작했다. 철석같이 약속한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은 슬그머니 실종된다. 천안함의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북쪽의 전술적 화해 제스처에 놀아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만지작거리는 시늉이 탐지되고 있다. 환골탈태를 다짐했던 군부가 무비유환(無備有患) 쪽으로 역행하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오죽 속이 상했으면 “아직도 정신 못

사와 정치는 때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때를 모르고 있다. 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 어떤 때인가. 북의 핵공갈에 좌파는 입을 봉하고 있다. 특하면 정의를 치켜세우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꾼’들의 그 흔한 ‘춥쌀’도 불견(不見)이다. 천안함 쇼크 전과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3대 세습왕조 등장 전과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한국인 특유의 ‘냄비근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4]

탈북자 생생한 증언 들어

건강포럼, 11월엔 13일 개최

“아마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부터는 탈북자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건 잘 살게돼서 그런게 아니고요. 집안에서 한사람이라도 탈북을 했다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총살하거나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 보위부에서 붙잡아 가 역시 총살하거나 감옥에 보내니까 이젠 탈북을 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못할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탈북자 색출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파견된 보위부원들이죠. 탈북자가 연변 등에 오면 거의가 보위부원한테 붙들려 가는데 이것은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큰 상금을 노리고 바로 신고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인민들은 지금 북한이 못사는 것은 미 제국주의와 남한때문”이라며 흔히 “남조선 새끼들 때문”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래도 남한 라디오를 몰래 들은 사람들은 남한실정을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황해도에서 의사를 하다 중국을 통해 탈북한 조은혜(가명) 씨가 지난 달 16일 서울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노기와 홀에서 열린 건강포럼에서 한 말이다. 이날 건강포럼은 탈북단체인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소속 최근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위해 열렸다. 특히 지난 4월에 탈북한 기업인 홍성진(가명)씨는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김정은은 건재 할 것이지만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 북한에 큰 변화



건강포럼에서 탈북자가 북한 실정을 얘기하고 있다.

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한국에서 보낸 쌀이 북한에 들어올 때면 자신도 분배작업에 참여했다며 많은 양이 군대로 배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남한에서 남는 쌀을 다시 북한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은 특히 탈북자인 이영옥(가명) 씨가 북한에서 많이 부르는 ‘반갑습니다’를 바

이올린으로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송낙환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장이 나와 “대한언론인회의 원로 언론인들이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말을 했다. 포럼이 끝난 후 참석했던 회우들은 만남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연말 총회 때 탈북예

술인들로 구성된 겨레하나예술단을 초청 해 줄 것을 건강포럼 담당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 11월의 ‘건강포럼’은 오는 13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명동에있는 이윤수 비노기와 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이윤수 박사가 맡는다. 이달 주제는 미래의학으로 ‘回春과 즐기세포’이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황장엽의 주체사상이 남긴것

북한에서 김정은 세습체제가 출범하던 지난 10월 10일 황장엽 선생은 타계하였다. 황장엽은 '반소련' 또는 자주노선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던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으로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체계화하여 당시 북한의 통치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였던 인물이다. 북한식 표현으로 사상의 수령이었던 셈이다. 그런 황장엽의 탈북은 북한 체제에 커다란 충격이었고, 우리사회는 물론 전세계에도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황선생의 탈북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황선생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던 1997년 2월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는 식량난과 아사사태가 북한 전역에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변고를 예고한 것이었다. 한국에 온 황선생은 북한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지난 정부 10년동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활동을 제한받았지만, 그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뛰쳐온 용기로 자기 할 일을 지속하였던 인물이다. 20여건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북한체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던 분이다. 그의 통일모델은 문화일보 10월 12일자에 보도된 대로 '김00체제 붕괴 → 10년동안 북한내 대체세력에 의한 정권운영 → 정치·경제적 격차를 줄인뒤 통일'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독이 밑으로부터의 봉기를 통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고 새 지도부가 서독과 통일 협상을 추진하여 동서독 통일이 실현된 점을 고려할 때, 황선생의 통일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황선생의 족적은 북한에 더 크게 남아있다. 북한에 남기고 온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북한체제 변화의 새싹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이념이 반체제이념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주체사상은 소련파들을 사대주의자, 주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숙청하기 위하여 김일성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당시의 주체는 곧 반소련의 의미였다. 그런데 1970년대 초 황장엽이 만든 주체사상은 이전의 50-60년대의 자주노선의 주체사상과는 크게 다르다. 황장엽판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상으로서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사상임에 틀림없다. 전체주의 북한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것이 북한에서 통치이념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 사망과 흐루시초프의 우상숭배 비판 바람이 북한에서도 김일성 우상숭배비판바람으로 이어지자 反蘇노선을 택하였던 김일성이 소련제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폐기하기를 원했고 대안을 찾고 있었다. 그때 황장엽이 주체사상에 대한 새

時 論



서 재 진
· 통일 연구원 원장

자료'는 주체사상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만이 아니라 힘든 노동과 낡은 사상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이 인간

잔재로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자국 내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는 많다. 우리나라의 4·19혁명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승만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남한의 체제이념으로 도입되었고, 북한보다 남한이 우월하다는 명분으로 강조되었다. 민주주의는 체제이자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나 통치자가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을 때 민주주의라는 지배이념은 유린된 것이다. 이에 전국민이 분노하여 봉기하였고 정권은 더 이상 지탱할 명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승만정권이 민주주의를 외쳤을 때는 허위 의식이었지만, 학생들이 외쳤을 때는 혁명적 구호로 전변되는 것이다. 동독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에 따라 '인민'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동독에서 사용된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인민복지를 위해서!' 등이다. 동독의 시민들이 1989년에 체제에 저항하여 끝까지 싸웠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또는 "Wir sind das Volk!"이다. 이 외침의 의미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당국이 수없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인민이니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인노릇을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혁명적 구호로 전변된 것이다. 지배자들이 허위의식으로 사용하던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자들이 그 이념을 현실로 실현하자고 집단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지배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혁명적 구호, 또는 저항이데올로기로 되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는 그동안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역할을 하였으며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동독체제를 전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동독의 시민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ir sind eine Volk"이라고 외치면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장벽을 넘었을 때는 그 구호는 동서독이 통일 되는 혁명적 구호가 된 것이다.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꿈꾸던 남북통일이 그가 뿌려놓은 사상에서 씨앗이 돌아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 본다. [4]

北체제 '지배 이데올로기' 구축했지만 주민 '저항 이데올로기' 반전 가능성

로운 사상체계를 내놓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상이라는 점에서 깊이 검토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명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사회통제 능력에 따라서 혁명의 이론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로는 혁명사상으로 정의된다. 주체사상의 3대 요소를 혁명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로는 혁명사상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총서' 제4권은 주체의 혁명이론이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밝혀주었으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체의 혁명이론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대중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이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이론이라고 본다. 즉 피압박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에 관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기성체제에 대한 혁명이론이자 저항의 이론인 셈이다.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 교재인 '주체사상 학습참고

해방의 사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로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그 방도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수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때려 부셔야 할 '낡은 사회제도'란 물론 일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제도이다. 그러나 일제를 경험하지 않은 현재의 세대들에게 낡은 사회란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혁명사상이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주체사상은 불멸의 빛나는 사상이며 착취와 압박, 부정을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적 사상"이라는 이 명제는 혁명사상에 가까운 명제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명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현재의 북한체제가 과거의 일제식민지에서 북한인민을 해방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이고 현재에는 현재의 체제가 북한주민을 착취하고 압박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체사상이 이전 체제의 잔재를 낡은 체제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체제를 낡은

다. 인 터 넷 주 소 창 은 http://www.sexacademy.org 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마련된 '건강강좌'에 매달 연재되는 '미니의학상식'에도 많은 관심 있길 바랍니다. (이보길 행사집행위원장 기)

4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이보길 건강포럼 담당위원은 한국전립선협회를 방문해 송영용 사무총장에게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의 전립선 무료검사를 계속 실시해 줄 것을 요청, 내년 3월에 무료진료를 실시

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본회와 전립선협회의 합의에 따라 내년 검사 때는 대한언론인회가 주축이 돼 검사를 원하는 각 언론사우회도 동참시키기로 했다. [4]

※그동안 '건강포럼'으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을 주제 다양화에 따라서 '토요포럼'으로 행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한국성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토요포럼' 난을 신설하고 회우 여러분의 글도 받기로 했습니다.

다. 인 터 넷 주 소 창 은 http://www.sexacademy.org 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마련된 '건강강좌'에 매달 연재되는 '미니의학상식'에도 많은 관심 있길 바랍니다. (이보길 행사집행위원장 기)

이명박 정부 레임덕을 막으려면

레이미 덕(Lame Duck)이란 질름거리면서 뒤뚱뒤뚱 걷는 오리를 말한다. 이말은 남북전쟁이 끝난뒤인 1860년대 후반 이래 지금까지 미국 정가에서 사용되어 오고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失政)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도력을 크게 상실했을때, 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임기만료때까지 무기력증(症)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언론과 야당이 “레이미 덕 증세가 보인다”고 지적하면 내심 불쾌해하지만 대체로 ‘충고’로 받아들이는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늙고 기력이 떨어지고 사고도 둔해지는 것처럼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막바지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결정, 중요한 인사들은 하지않고 후임자에게 넘긴다. 반면 한국에서 레이미 덕 운운하면 대통령들은 펄쩍뛰며 “나는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애써 강조한다. 사실 한국에서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약속이나 한듯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다가 실수와 실정(失政),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비리, 각종 게이트의 혼돈속에 우왕좌왕하다가 무기력증의 길을 걸어갔다. 대선때 이들은 한결같이 민의존중, 경제발전과 민생안전, 법치주의 준수, 공정한 인사, 부정부패 척결, 지역주의 타파, 힘있는 총리, 장관에게 일할 임기(2년이상)주기등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한 대통령은 거의 없다. 민의무시하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독선·독주하기, 편중인사, 지역주의 심화, 권력형 비리의 연발, 여전한 대독(代讀)총리, 잦은 개각으로 1년짜리 장관의 양산(量産), 여기에 잇단 실정으로 허둥대다가 추락하고 만것이다. 이들은 임기가 중·

후반기에 접어들면 언제나 외치는 말이다. “나에게는 레이미 덕이 없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수행하겠다”고 큰소리 치곤했었다. 하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은 제각기 국정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일부 성공과 성과를

時 論



이성춘

· 본보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불시위를 비롯 대운하 포기, 미디어법을 둘러싼 지리한 충돌, 세종시 수정안 무산, 4대강사업에 대한 거센 저항, 안으로는 친이-친박계간의 갈등, 그리고 여전한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과 마찰 등은 실패내지 시행착오 등으로 지적된다.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 등은 이대통령도 자인했듯이 국민 야당과 여당에 대한 설득과

28재보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단 체면을 되찾은 셈이다. 그는 뒤늦게나마 내각과 청와대를 대폭개편, 인사쇄신을 하고 8·15경축사를 통해 임기후반기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로 기왕의 친서민 중도실용외에 ‘공정사회의 구현’을 선언했다. 국정전반, 모든분야에서 공정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대통령은 앞서 “재임중 전임자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사면복권은 결코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공정원칙을 선언한 그날 단행한 사면·복권 대상자 2400여명중 80%이상을 노건평·서청원 등 권력형 비리 선거법위반인사들을 포함시켜 국민을 어리둥절케했다. 이것이 공정한 법치주의인가하고 의아해 하는것이다. ‘새로운 출발’(New Start)을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과연 순항(順航)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국가의 안위와 발전, 민생과 사회안정 등을 위해 반드시 순항하도록 해야만 한다. 문제는 레이미 덕의 증세와 레이미 덕 병(病)의 생리

歷代 정부마다 失政으로 무기력 노출 공정·투명으로 국민 마음 사로 잡아야

울리기도 했지만 임기후반에는 과신과 태만, 실책, 독선, 측근의 비리등으로 레이미 덕 병(病)에 걸려 쓸쓸하게 물러나야 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이달로서 5년임기중 2년9개월째를 맞았다. 마라톤에 비유하면 반환점을 돌아 후반코스에 접어들것이다. 그동안 그는 몇가지 공(功)과 성과를 올렸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세계적 금융위기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중 앞서서 위기를 상당수준 극복한것,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 동중서 원전(原電) 200억달러 상당 수주, 서울서 G20정상회의 개최 등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쇠고기파동과 촛

소통, 포용을 소홀히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의 패배는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국민들은 정부의 민의 경시, 오만과 독선 등에 대해 경고와 함께 엄정한 심판을 내린것이다. 선거패배 후 여기저기서 “레이미 덕 현상이 시작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이대통령은 전임대통령들처럼 “나에게 레이미 덕은 없다.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로서는 귀에 익은 얘기를 또다시 듣게 된 것이다. 아무튼 고심하던 이대통령은 56일만에 국민들이 이번에는 오만한 야당을 심판함에 따라 여당이 7·

다. 허점과 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통치권자와 정부를 무기력증, 또는 거의 ‘식물상태’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집권세력의 민심외면, 독선, 독주, 실정, 법질서훼손, 권력형비리, 기리끼리 인사 등은 레이미 덕을 자초하는 병인(病因)이자 촉진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대통령과 정부는 집권후반기 동안 민의존중과 소통·화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국가경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이명박의 사전(事典)에는 레이미 덕이라는 용어”가 없을 것이다. [4]

유교의 땅 안동은 지금 儒敎文化博物館을 현대식 건물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한국의 유교성지임을 자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선비문화 체험을 계속 권유하고 있다. 이럴때 과연 유교는 완벽했는가도 가끔은 생각해 보게된다. 實學과 儒敎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즉 漢城旬報(1883년 창간) 기사 중에는 영국의 버밍엄(Birmingham)병기창에 중국인 방문 기사가 있었는데, 그 병기창 지배인이 중국시찰단을 맞아 대화한 한 토막이 생각난다. 그 지배인은 중국인에게 물기를 “당신네 나라에서는 왜 병기기술을 배우지 않느냐”고 했다. 그물음에 중국인은 “중국 사람들은 孔子와 같은 성인의 말만 따르면 되지 병기기술은 필요치않다”는 등의 답을 했다. 그루렵 영국은 實學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虛學을 하고 있다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실학이란 콩나물이 어떻게 크느냐, 화약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폭발하느냐는 등 사물의

유교의 땅 安東을 다녀와서

이치를 익히는 학문이며, 허학은 공자 이론 같은 헛된 논리만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영국사람들은 비아냥댔다. 그때 동양에서는 일본인 한사람이 영국 병기창에서 병기기술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일본은 서구에서 병기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실학을 도입했으며 그 후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병기기술이 발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실학

수 상



이선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을 도입하여 열심히 익히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자는 유교로서 후대에 중국을 어느정도 발전시켰을까하는 것이다. 허학으로 발전은커녕 많이 퇴보해온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앞에서는 실학과 허학의 측면에서 보았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자를 시조로 하는 孔子敎 즉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하는 유교는

어떤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를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알베르 카뮈를 우리는 흔히 무신앙의 신앙인이라고 한다. 카뮈는 사람이기에 무엇인가 믿고 싶긴한데 어떤 종교든 종교는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뮈를 무신앙의 신앙인이라 한다. 카뮈가 그랬는가 하면, 지금 베트남 다낭시에서는 ‘까오다이교’라는 것이 있어 예수, 석가, 이슬람교를 함께 모시고 믿는다고 한다.

또한 외신에서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성인들은 모두 지금에 맞지 않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류의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상한 말도 했다. 실제로 188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정신에 폭빠져 일본과는 달리 실학도입을 외면했다가 결국 모든것이 일본에 뒤지기까지했었다. 지금와서 유교문화박물관 견학이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체험행사를 적극 권유해야 할것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따지기 보다 시대에따라 사람들은 실학에 바쁘기 때문이다. [4]

술과 詩의 고장서 가을 정취 흠뻑

회우들 모두가 기다려지는 가을 철 문화탐방. 올해는 명성황후 생가와 영릉(세종대왕릉) 신록사가 우리 일행을 반겼다.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에 보에 우산을 준비한 회우들도 있었지만 여주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더 없이 슬기롭고 어지신 세종대왕과 뚜렷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북방을 정벌, 옛 국토를 회복하려던 효종대왕의 능침을 모신 곳 여주, 고려가 낳은 빼어난 문장가 백운거사 李奎報 (저서 동국이상국집·백운소설)의 고향이기도 하다. 언론인 송지영씨는 여주를 가리켜 “술과 시가 흐르는 기름진 고장”이라고 격찬했었다.

민유중 묘막 명성황후 생가터

인터체인지를 지나 버스로 10여분 달리니 명성황후(조선조 제 26대 고종 황제의 비) 생가,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으로 자주성을 지키면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인에 의해 시해당하여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던 명성황후가 출생해 8세까지 살던 집이다.

유창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명성황후가 어렸을 때 공부했다는 방을 뒤로하고 뒷산에 오르니 숙종의 장인이자 명성황후의 6대조인 민유중의 묘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준다. 이 묘는 혼유석에 제사를 지내는 게 특이했다. 민유중, 그는 인현황후의 생부로 그 역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 간 역사의 인물이다. 명성황후 생가 터가 바로 민유중의 묘막이 된 연유를 늦게나마 안 것도 큰 공부였다. 당시 건물로서 남아 있는 것은 안채 뿐이었으나 1995년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복원됨으로써 면모가 일신되었다고 한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에서 지근거리엔 천하의 명당 세종대왕릉이 한창 봄비는 관광객과 수학 여행온 학생들을 맞고 있다. 사적 제195호. 원래 영릉은 소헌왕후(세종대왕 비 심씨)가 죽은 1446년(세종 28) 광주(廣州) 현릉 서쪽에 조성하여 그 우실(右室)을 왕의 수릉(壽陵)으로 삼았다가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했다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세종대왕의 발명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측우기,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발명하였으며 아악을 정리하고 북방의 아인을 정벌하여 국토를 확장하였으며 대마도를 정벌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학문을 중시하여 학자를 양성하고 활자를 개량하여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등 수많은 책을 발간하였다. 요즘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노벨상은 따 놓은 당상이 아니었을까. 영릉 참배에 앞서 여기서도 미모의 해설사는 그 특유의 전문지식을 총동원해

대한언론인회 여주일대 문화탐방



명성황후 생가앞에서.



세종대왕릉인 영릉참배를 마치고.



신록사에서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안달이다.

왕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의 하나로서 합장릉임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혼유석이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둘렀으며 12개의 석주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

놓았다. 능의 정중앙에 팔각의 장명등이 있으며 주위에 석호·석양·석마·문인석·무인석·망주석을 배치했고 능뒤에는 나지막한 곡담을 둘렀다. 예로부터 동입서출(東入西出)·동쪽으로 들어갔다 서쪽으로 나오는 것이 정더라는 해설사의 말을 들어서인지 모두

들 우측통행이다. 다른 묘는 제단에 음식을 놓는데 세종릉 제단은 그 자리에 영혼이 나와서 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어느새 시간은 정오를 넘기고 있다. 학수고대하며 찾은 식당은 여주 관광안내소에서 자랑삼아 추천한 ‘하늘새’ 식당이다. 코스정식인줄 모르고 찾은 우리 일행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는 듯 싶었다. 그래도 맛은 있었다는 촌평도 없지 않았지만 여주명물 능서 쌀 막걸리가 그나마 기분을 호전 시켜 준 셈이다.

신록사에서 ‘보물찾기’ 바빠

서둘러 신록사로 가는 길, 해설사가 먼저 나와 기다린다. 신록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각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에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1376년 나옹선사(懶翁禪師·1320-76)가 입적한 천년고찰로도 유명하다. 나옹선사는 인도의 고승 지공스님의 제자이며 조선건국에 기여한 무학대사의 스승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의 시가 생각난다. 해설사는 자기 말대로 ‘보물찾기’에 바쁘다. 보이는 게 모두 보물이다. 1472년(조선 성종3)에는 영릉 원찰로 삼아 보은사라고 불렀다가 신록사로 부르게 된 유래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미륵(해군을 가리킴)이, 또는 해군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넌 마을에서 용마가 나타나, 견잡을 수 없이 사나우므로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때 인당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자 말이 순해졌으므로, 신력으로 말을 제압하였다 하여 절 이름을 신록사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오후 4시 반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 서둘러야 할 시간이다. 이번 문화탐방에도 해설사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의 박물관이나 역사 문화유적지에 밝은 김관태 회우(박물관 도슨트)의 해박한 지식은 단연 압권이었다. 모처럼 분리 시도해 본 금년도 대한언론상 시상식이 많은 문화탐방 회우들로 하여 자리가 한층 빛났으니 집행부 입장에선 그저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가을철 문화탐방, 대한언론상 시상식 두 행사를 하루에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준 회우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

글·정준중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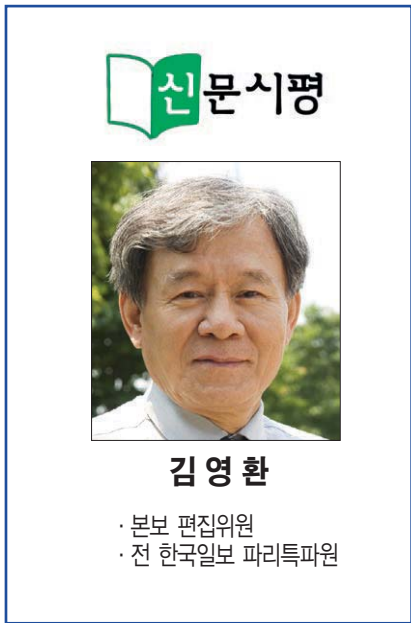
사진·이학성 시사인뉴스 편집국장

北 3대세습보도 매체따라 視角差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등장한 북한 김정일 체제가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시대착오적인 3대 독재 세습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6년간 베일에 가려졌다가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오랜 준비 후 집권했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27세의 검증 안 된 청년으로 대장 칭호를 받으며 권좌에 오르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10일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김정은의 세습에 대해 “차세대 지명자가 되었다고 해서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 3살 때부터 총을 쏘았고 북한 핵개발의 주역이라는 선군정치식 우상화 작업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후사가 급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선군정치 고수는 인물이 바뀌면 혹시 북한이 개혁 개방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회구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짓이다. 북한 외무성 부상인 박길연은 9월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선군정치에 의한

이영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앙일보에 분석했다. (10.4)

북한의 3대 세습은 보호국이나 다름없는 공산 중국을 빼놓고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폭압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家)에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한 ‘불안정사태’ 가능성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확장억제 정책기구를 국가간에 처음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언론매체들은 북한 3대 세습을 보는 시각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럴 때 일수록 대북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단호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한다”고 썼다. (10.5 23면) 동아일보는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북한을 한사코 감싼 것도 모자라 3대 세습까지 보호한다면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지도부 교체라도 할 수 있도록 훈수하는 편이 중국에 어울리는 대응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대북한 역지력의 열쇠가 되는 것은 주변국의 결속이다. 중국과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한미일 연대강화야말로 최우선 과제”라고 단정했다. (10.4 사설)

중국공산당은 10월17일 당서열 6위의 시진핑(57)을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임함으로써 포스트 후진타오의 포석을 놓았다. 그에 앞서 노벨상 위원회는 평화상 수상자로 투옥중인 중국의 반체제인사 류사오보를 선정했다. 그는 중국의 언론과 종교 등의 자유를 요구하는 08헌장을 기초한 사람이다. 북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민

부정적 평가 불구 일부서 ‘내재적 접근’ 주장 김정은 관상풀이등 흥미위주 과잉보도도

강력한 전쟁역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수십 차례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10일 사정거리 3,000km의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등장한 가운데 북한군 2만여 명이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를 지휘한 총참모장 이영호 역시 “미제국주의자들이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자위적 핵 역지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북한의 ‘핵 공갈 놀음’은 중국의 묵인 하에 몇 년 동안 소득 없이 ‘회의를 위한 회의’를 거듭했던 6자회담에서도 드러났다. 8월말 김정일의 동북3성 방중에서 사실상 김정은 후계체제로의 이행을 승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방중한 최태복 북한 노동당 비서 일행에게 “노동당 대표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북한 당과 인민의 생활에서 대 사건”이라며 “김 총비서를 우두머리로 하는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중앙집체의 영도하에서 노동당·정부·인민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성국가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성취를 거둘 것을 믿는다”고 치하했다. 이는 최근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구성된 노동당 정치국 5인 상무위원(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복,

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 되는 거 아니냐”며 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북한의 행태를 그쪽 사정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음은 딱 봐도 초등학교생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일본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비판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물론 김은 “세습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은 했다. 천안함 폭침의 의문점을 들어 유엔에 편지를 보냈던 좌파단체 참여연대도 북한의 독재세습을 비판했다. 참여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시민의 주권을 제약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면서 “한 사회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힘은 총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우리 언론은 8월 김정일의 방중을 아이돌 톱스타를 추적하는 듯한 흥미위주의 과잉보도와 그들의 선전 선동을 여과 없이 중계하면서 김정은의 관상을 풀이하는 해괴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10월8일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3대 세습과 관련해 북

것”이라고 썼다. (10.1 31면) 동아일보는 “북한이 권력세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제안정을 위해 개혁 개방의 시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고 천안함 도발에 결연히 대응하는 것은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썼다. (9.29 31면) 세계일보는 “북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중심적 수단은 핵무기다. ...최근 북의 6자회담 재개 발언이 연막술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봉건국가에서 행해지는 권력세습을 공식화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9.29 35면) 그러나 한겨레는 “문제점을 잔뜩 지닌 체제가 3대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외부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려운 북한사회의 특수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위 ‘내재적 접근’ 방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럴 때 관련국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면 북한 체제도 유연한 인물군이 들어서기 쉽지만 압박 일변도로 가면 강성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한 외교에 대해 국민일보는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화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87세를 일기로 작고한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많은 남한 국민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믿지 않고 김정일을 두둔한다면 통일엔 커녕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암살조를 파견할 정도로 눈엣가시였던 그는 지난해 9월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 김정일과 그 일당들이 핵과 미사일까지 만들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북한주민의 처지에서 본 햇볕정책 10년’ 세미나에서 “사악한 김정일 집단이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살찌우고 유지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탕진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리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내부사정으로 치부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다. 그런 외면이라면 대북 원조를 주장하는 논리가 이상하다. 황 씨의 주장처럼 북한의 인권과 중국식 개혁·개방을 조건으로 10년간 대북지원을 했다면 북은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북한의 급변과 황장엽씨의 죽음을 보면서 남쪽의 우리들은 지금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4]



七甲山 정상에서 포즈를 취한 산악 회원들.

七甲山 가을 정취 만끽

본회 산악회 40여명 참석

단풍의 계절 10월. 본회산악회는 지난 10월14일 목요일 충남 청양 칠갑산에서 2010하반기 회원단합 등산행사를 가졌다.

하반기 가을 산행에는 안종우 회장을 비롯, 김재영 산악회 명예회장, 김영호 박실 본회 이사, 지용우 고문 등 40여

명이 참석, 짙어 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오전 8시정각 프레스센터 앞에서 버스로 출발, 10시30분께 칠갑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 정상을 거쳐 아흔아홉골을 비롯 냉천계곡, 천장호 흔

9면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 특채 행태 눈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던가. 요즘 국회의원들 행태를 보면 바로 이런 주장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붙였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채 파동은 본인들에게는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크나큰 반면교사 역할을 했다. 그때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것 없이 모두 유장관의 행위를 비난했다. 그러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일에서는 어떠했나. 자기 아들이나 딸, 조카 그리고 처남을 국회에 취직시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10월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우선 여당을 보자. 송광호의원은 자기 딸을 연봉 6천만원짜리 비서관에 특채했고 안상수대표는 조카를 비서로 채용했다. 김성조의원은 매제를, 안경률의원은 조카를 4급 보좌관으로 특채했다. 야당의원도 친인척을 자기들의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특채하는 데는 여당의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장세환의원은 처남을, 이영애의원은 자기 딸을 보좌관으로 각각 채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 왔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홍재형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때 도움을 주었다며 직접 홍 부의장에게 부탁해 자기 아들을 4급비서관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또 홍재형 부의장은 지난 6월 부의장에 취임한뒤 처남 전모씨를 1급상당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홍 부의장 측은 “전씨가 오랫동안 대기업등에 근무해 자격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한다. 그렇다면 홍부의장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 유명환장관 딸은 자격이 미달돼서 문제가 된 것인가, 그리고 수십번 입사시험을 쳐도 합격되지 않아 놓고 있는 청년 실업자 수십만명은 자격이 모자라서 백수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우리가 이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국회가 사기업이 아니며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홍 부의장은 공무원으로서도 성공의 가도를 달려

부총리까지 지낸 분이 아닌가. 홍 부의장같은 우리 사회의 최고 지도급 인사들(국회의원도 포함해서)의 판단이나 사고방식이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지경일진덴 국민들에게 무슨 염치로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지표로 내세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합심해 나가자고

V 방 송 시 평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公金횡령에 분노 SBS ‘아름다운 청년 박용하’ 심금울려



SBS 희망TV ‘아름다운 청년’ 박용하의 한장면.

요구할수 있겠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금횡령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10월 21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사랑의 열매로 잘알려진 공동모금회는 태안기름유출 피해주민돕기 국민성금등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이 돈으로 직원들에게 일본과 백두산에 관광여행까지 보냈다고 한다.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공익을 설립목표로 하는 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리고 재해 피해 국민을 지원할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쓰는등 투명성을 상실한다면, 그 기관은 이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진다. 뉴스데스크는 10월 21일까지 400억원의 기부 약속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이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역시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먹칠을 한 것이다.

사망때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다. 최근 CBS보도(9월13일)에 따르면 문제의 연금은 처음 지급된 1988년 이후 매년 평균 11%씩 인상됐다고 한다. 1988년 부터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적게는 10%, 많게는 66%씩 인상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CBS는 국민층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국민최저생계비’가 지난 10년간 매년 3%내외로 소폭 인상된것과 비교해 지나치다며,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김모씨의 반응을 곁들여 보도했다.

이 법안 개정안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8월 처음 언론에 보도될때 까지 국회가 국민들에게 숨겨 왔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뒤늦게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었다. 이어 민노당 이정희의원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9월3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지금까지 여야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이루어 졌다는 얘기도 없다. 이정희의원들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고 하루 빨리 법안은 개정돼야 한다” “한나라당 원희룡사무총장도 의원들이 각출을해 전직의원들을 돕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면서, “원로회원 지원금은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여론이 불리하게 돌아 갈때는 금방이라도 개선할것 처럼 하다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커녕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여의도 풍경을 멀리서 건너다 보면서 우린 “정치란 잘하면 은어가 고등어 만큼 커져서 돌아 오게 하지만, 잘 못하면 은어를 떼죽음 시킨다”는 서해림의 절규(SBS 대물)나, “정치가란 자들은 가장 하급인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오로지 권력을 갖기 위해 전혀 회의할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곰곰히 음미해 보게된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도 이와같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국회의원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심금을 울려 주는 훈훈한 인간스토리가 있기에 살맛이 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SBS의 희망TV ‘아름다운 청년 박용하’ 편(10월 22일 밤 8시50분)은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도 높았지만 공영방송의 몫을 민영방송이 맡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난 9월18일 개교한 아프리카 차드의 ‘요나스쿨’은 탤런트 고 박용하의 아름다운 영혼이 이루어 낸 고귀한 작품이었다. 박용하는 생전에 차드를 찾아 어려운 환경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모습이 지난해 8월 박용하가 살아 있을때 SBS 전파를 탔고 이에 감동한 일본의 팬들이 420만엔(5700여만원)을 모금해 기부해 왔다. 고인은 이 돈을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에 전달했고 이번에 그 결실이 이루어 진것이다. 요나스쿨 건립과정과 고인의 생전 봉사활동을 소개한 ‘아름다운 청년 박용하’는 비단 고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기에 충분했다.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기원한다. [4]

8면에서 이어집니다.

들다리, 천년 고찰 장곡사 등 총 8km에 달하는 장장 3시간여 산행을 회원 모두 무사히 종주 했다. 하산 뒤 칠갑산 근처의 향토음식점에서 뒤풀이 오찬을 갖고 회원들의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이번 산행에는 산악회 발전을 위해 본회를 비롯, 지용우, 박실, 정운중, 김재영, 안종우, 이상호 회우가 각각 찬조금을 기탁 했다. [4]

언론正道 死守의 旗手...급힘없는

‘편집의 전설적인 게이트 키퍼’ 權度洪(78) 선배. 산수(傘壽)를 앞두고 있으나 젊은날보다 안광(眼光)이 더 형형(炯炯)하다. 權선배는 지난 4월 ‘날씨 좋은 날에 불던 바람’ 제하(題下)의 자전(自傳)을 나남출판사에서 냈다. 책의 부제도 ‘권도홍 편집기자 자전’이다.

이 책에 올린 이력도 눈길을 끈다. 부산일보에서 시작해 동아일보에서 끝난 기간이외의 활동은 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기에 “55년 12월 8일 부산일보 입사일에서 75년 3월 27일 동아일보 해임일까지 만 20년의 신문기자 세월은 내 살아온 세월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내 삶의 핵이다. 그 중에서도 편집기자 10년은 핵 중의 핵이다”라고 명백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權선배는 편집기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편집기자는 어느 의미에서 순간의 승부사다. 순간적으로 기사 제목을 정확하게 뽑아야 하고 내용을 한마디로 전달할 수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어휘들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편집기자가 뽑는 제목의 크기에 따라 기사의 경중(輕重)이 결정되고 지면의 숙성도란 것도 독자들이 기사 배열이나 제목 등 편집자의 손끝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權선배는 한때 기자 생활을 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글을 든다. “꼭 맞는 단어와 거의 정확한 단어의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이다.(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word and almost right word is the difference between lightning and lightning bug.)” 편집과 관련한 權선배의 일화(逸話)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유신 시절을 전후하여 동아일보의 편집을 맡았던 權선배는 당시 ‘자유언론 실천과 수호’를 위해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 정도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쳤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정보부에서 그 술한 금품 회유나 협박, 나아가 사장의 입을 빌린 지시마저 權선배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기사의 취사 선택은 오로지 언론의 정도를 지키겠다는 양심에 따라 결정 했다. 그때 우리들은 그런 현장들을 목격 했다. 연락을 드리고 가회동 집으로 찾아갔다. 서가 앞 벽에는 유신시절 그렇게도 꺾박 받던 천관우 선생의 흑백사진 두 장이 걸려 있어 權선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아래에 權선배가 직접 세로 두 줄로 단정하게 쓴 다음과 같은 글이 눈길을 멈추게 한다.

‘梅花不傲寒 眞金不傲火(매화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쇠는 불을 겁내지 않는다)’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의 하루는 정해져 있어요.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며 보내요.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내가 개발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아래 위 이빨을 부딪치는 고치(叩齒)를 36번 한 뒤 양손을 50번 정도 비벼 뜨겁게 한 뒤 눈가의 뼈에 갖다 대고 마사지를 2, 3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와 눈이 아주 건강해져요. 이어 작은 해서체로 붓글씨 1백자 이상을 매일 씁니다. 그리고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롯데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해요. 나는 하루 1천 2백 칼로리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8>

회우초대석

권도

인터뷰 이병대 (본회 부)

점심을 들고 집에 와 오후 1시쯤 낮잠을 1시간 정도 잔 뒤 독서와 집필을 하지요.”

權선배의 집은 거실은 물론이고 3개의 방과 심지어 부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책으로 꽂 차있다. 중국책과 일본책 그리고 국내본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리 정돈 되어 있다. 놀라게 하는 것은 장식적 의미로 꽂혀 있는 책은 없고 거의 한번 이상 읽은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구당서(舊唐書) 등 중국에서 발간된 각종 서적들의 중요한 대목에는 읽으면서 직접 달아놓은 꼬리표들이 정연하게 붙어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현관 옆방 벽면들을 꽂 매운 중국 서화(書畵)와 건강 관련 책들이다.

- 중국의 서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서화는 ‘진짜와 가짜’의 역사지요. 예를 들어 왕희지 글씨를 후세의 누군가 그보다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왕희지 이름을 쓰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중국 서화는 이처럼 진짜와 가짜가 서로 발전해 온 것이 서화사조. 청나라때 조선 사람으로서 당시 전매품이었던 소금 영업을 해 큰돈을 벌었던 안기(安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서화에 관심이 많아 그때까지 내려오던 중국의 대표적인 서화들을 모아 ‘조선국인’ ‘안기’라는 도장 두 개를 만들어 진품인 경우 찍었습니다. ‘안기’라는 도장이 있으면 진품이라는 보증을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몇 권의 책을 쓸 계획인데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것이 중국 서화사입니다.”

- 옛날로 되돌아가 보지요. 어떻게 해서 편집기자가 됐습니까?

편집기자 自傳 ‘날씨 좋은 날에 불던 바람’ 독서 · 집필 · 운동으로 인생의 마지막 사명

“처음 신문사에 들어갔더니 경찰기자를 하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편집기자를 한다고 했어요.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봐요. 용돈 생기고 환경도 좋은 취재기자를 안한다고 하니 이상한 눈으로 볼 수 밖에요. 나는 그때 편집기자가 되면 단번에 일류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남의 정보를 빼내는 취재가 자신 없었고요. 그 후 나는 편집기자가 나의 자리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편집에 대한 나의 열정은 웬만한 기자는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 이랄까 자긍심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으니까요.”

- 편집기자하면서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편집기자로 일할때가 내 인생의 핵” 이라고 강조하는 권도홍 회우.

“내가 동아일보 입사시 최두선 사장 때였는데 한 번도 기사를 빼고 넣으라 지시한 적이 없었고 인품을 갖춘 참 훌륭한 사장이었어요. 동아일보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3선 개헌안이 통과되던 1969년 9월 13일 나는 편집기자 몇하고 밤 8시경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돌아와 호의를 발행하면서 ‘개헌안 공화 변칙처리’라는 제목을 뽑았지요. 중앙정보부에서 ‘변칙’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호외재록 첫 판 작업때 사장이 국장을 통해 ‘변칙 처리’를 ‘변칙 통과’로 고치라는 지시를 했으나 따르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14일 동아일보 6면에 정보부에서 동아일보 기사처럼 만

든 전면기사 광고를 실었습니다. 게재되기 나흘 전 광고부장이 찾아와 문제의 정보부 기사 편집을 부탁하기에 거절했는데 광고 게재일 하루 전 K신문 이모부장이 동아일보 문선부에서 조판하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광고를 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같이 편집된 광고를 독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급하게 그날 1면에 2단 박스를 만들어 6면이 전면광고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렸습니다. 얼마가 지나 당시 부사장이던 김상만 사주가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와 불려요. 갔더니 1면에 안내 박스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유럽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역시 동아일보’라는 말을

신문편집집의 전설

홍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 전 도서출판 청산 대표

회장

들었다는 칭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었지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70년대 초 정보부 서울분실장이 만나자고 해요. 갔더니 극장표라고 하면서 봉투를 줘요.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어 던져주고 나왔어요. 이런 것을 거부한 것은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면 수단이었어요.”

- 사장 지시까지 거부했던 용기는 어떤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하극상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은 동아일보가 그 이름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조 중 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누가 뭐래도 동아일보였습니다.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화두는 나에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폭압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일을 할 때는 적어도 동아일보만은 명운을 걸고 비판을 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믿음이지요. 이름은 허명(虛名)이어서는 안되고 이름값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죽어야 산다는 논리죠. 나는 사장 지시를 여러번 어겼어요. 사장 지시는 대부분 정보요원이 전화로 압력을 가할 때 안된다고 거절하면 곧바로 지시라는 형태로 다시 하달되곤 했지요. 내가 한 행동이 모두 옳았을까 하는 반문도 했지만 적어도 나는 이름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옛말에 삼군의 장수는 사로잡을 수 있어도 한낱 사내의 뜻은 뺏을 수 없다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 유능한 편집기자는 경험에 비취볼

입니다.”

- 얘기를 바껴서 편집에서 손을 떼신 뒤 강산이 몇 번 바뀐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요즘 신문 편집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앞에서 편집에 대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요즘 신문 편집은 맥이 빠져 있어요. 혼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제목은 40자나 되잖아요. 나는 제목의 글자수가 어떤 경우라도 15자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사인지 제목인지 알 수 없는 제목들이예요. 제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마치 기사를 쓴 기자가 제목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편집기사는 신문제작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중심점은 고사하고 원심적인 역할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자들도 전문성과 소신이 있어야 해요.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 신문 2페이지는 자기 분야의 글을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요즘 신문은 옛날에 비해 부피는 커졌지만 내용의 밀도는 약해졌다고 봐요. 그것은 전문성이 약하고 정확성이 떨어져 생긴 결과입니다. 덧붙여 한 마디 하면 기자가 다른 분야로 점프하기 위해 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출세를 위해 기자를 한다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큰 폐해를 주게 되겠지요.”

- 글씨 솜씨가 보통 아니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중학교 여름방학때 위의 두 형이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어요. 75년 3월 27일 동아일보 자유연론수호투쟁 농성에 가담하여 해임된 뒤 주부생활 부사장으로 가면서 퇴근 후 글씨 연습을 다시 시작 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매일 아침 해서체로 최소한 1백자는 연습합니다. 중국의 시부(詩賦) 등 좋은 글들을 골라 쓰면서 외우고 또 음미하면 즐겁습니다. 붓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잊습니다. 이런 것을 삼매경(三昧境)이라 하던가요.” 權度洪 선배의 편집기자 생애는 언론의 정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자기 희생의 역사다. 그것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마음이 초래한 고귀한 희생이다. 나는 최근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야망이나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명감이다. 사람이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사명감이다. 사명감은 각자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독서하고 집필하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權선배야말로 멋지게 노후생활을 역어나가시는 분이라는 부러움마저 느끼게 한다. 權선배가 매일 애송한다는 사무엘 율만의 ‘청춘’ 몇 구절을 옮겨본다. ‘청춘이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세월은 주름살을 더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은 시들게 하지 못한다/ 영감이 끊어지고 냉소와 비탄에 빠진 사람은 이십 세라도 늙은이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팔십 세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이다.’ 權선배님! 파이팅. [圖]

‘노인의 날’에 가본 종묘공원

현장 스케치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 보도국부장
- 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위원

“부인이랑 3년 전에 사별하고 나이도 80이 넘어가니 친한 친구들도 전부 세상을 떠나고 만날 사람이 없어 쓸쓸하니까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 뭐...” 종묘 앞 광장에서 만난 강모(82) 할아버지는 공원을 가득 메운 노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필자는 마침 그날 강남에서 옛 직장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종묘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종로3가역에 내리자마자 노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냄새와 함께 자욱한 안개(스모그)현상이 일고 있다. 넓은 종묘공원은 많은 노인들로 크게 북적인다. 공원 관리소 관계자는 “탐골공원이 2007년 사적지로 지정되고 나서 출입이 통제되자 종묘를 찾는 노인이 하루 3천~4천명 정도로 훌쩍 늘었다”며 “겨울에도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꾸준히 나온다”고 말한다. 이들은 주로 친분이 있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마주 앉아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장기를 두고 있었다. 주변에는 구경을 하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도 있다. 또 삼삼오오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바둑을 빌리는 데는 하루 종일 한 사람당 1,000원, 장기는 한 사람당 500원씩 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돈이 사람차별을 하는 것 같다. 천원짜리 바둑을 두면 자판기에서 막 빼온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서비스한다. 그나마 500원짜리 장기는 커피가 없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늘은 잔뜩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쌀쌀한 날씨에 한기(寒氣)까지 스며든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장기와 바둑에 푹 빠져 자리를 뜰 줄 모른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10여명씩 모여 역사, 정치 강연회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연사의 내용은 대부분 시국에 관한 얘기다. 김정은이 어떻고 북한 핵이 어떻고, 센가쿠 열도에서 일본이 중국에게 졌느니 하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열변을 토한다. ‘굿쟁이’는 굿꾼이 많아야 흥이 나듯이 내가 취재차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연사는 더 열변을 토한다. 그런가 하면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옆에서는 중국의 ‘파룬궁’ 심성수련 연기가 한창이다. 10여명의 회원들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음악에 맞춰 연공 동작에 심취한다. 날씨는 을씨년스럽고 점점 빗방울은 굵어진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홀로 사는 노인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이도 눈치와 팔시를 피해 공원을 찾는다고 한다. 일산에서 왔다는 김모(86)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노인 냄새’ 난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고 손자들도 가까이 못오게 한다”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한다.

이날이 노인의 날이지만 그 많은 사회단체나 구호단체에서 식사 한 끼 제공하는 곳이 없다. 그나마 며느리나 아들에

게 용돈을 몇푼 타온 노인들은 공원 옆 가게에서 라면이나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때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날이 ‘노인의 날’인줄 모르고 있다.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50만명이 가족으로부터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 노인 10명중 6명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앞으로 2018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4%가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 2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

나라 서민층 노인은 대충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노인은 친구들끼리 지하철 타고 천안같은 데 가서 목욕하고 순대 한 접시 시켜 소주 한잔 하고 오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몇 푼의 용돈을 탄 노인들은 광장시장에 모여 빈대떡이나 순대국 시켜놓고 막걸리나 소주 한 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주머니로 왔다가 점심 굶고 그냥 가는 노인들이라고 한다. 주로 종묘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이들과는 달리 별천지도 있다. 압구정동이나 강남 등 부촌에 사는 노인들은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같은 고급백화점 VIP룸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차와 음료를 들고 서비스를 받으며 친구들을 만나고 간다고 한다. 그러니 늙어서도 돈이 있고 봐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후 5시가 됐을까. 빗방울은 비로 변해 계속 내린다. 바둑과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한 두명씩 공원을 빠져 나간다. 역시 공짜 차를 타기위해 지하철 종로3가역으로 간다. 필자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옛날 노래가락이 흘러나온다. 지하 너거리 넓은 광장에서는 40대로 보이는 젊은이가 가요기기(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놓고 열심히 반주에 맞춰 색소폰을 불어댄다. 노래는 대부분 흘러간 옛 노래다. ‘나그네 설움’, ‘비내리는 영동교’, ‘목포의 눈물’ 등 애절한 옛날 노래다. 금방 노인 300~400명이 모여든다. 놀기를 좋아하는 노인 10 여명은 무대 앞으로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춘다. 노인 한 사람이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먼저 모금함에 넣는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지폐를 한 두장씩 넣는다. 젊었을 때 놀아본듯한 몇몇 멋쟁이 노인들은 만원짜리 지폐도 서슴없이 넣는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계속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른다. 노인들은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저녁 6시가 됐을까 필자는 무대를 뒤로하고 전차에 몸을 실었다. 차는 달려 한강 철교를 건넌다. 비는 세차게 내린다. 한강의 야경이 아련히 보이는 차창으로 노인들의 모습이 교차된다. 마치 오늘 일들이 10년후 아니면 20년후가 될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 같이 투영되면서 왠지 씁쓸한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한 번 유추(類推)하게 된다. [圖]

’ 최근 출간 영 완수 다짐

때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까?

“신문기자는 보통 3C를 얘기 하지요. 정확 (Correct), 간결 (Concise), 명백 (Clear). 편집기자는 여기에 3C가 플러스되어야 해요. 즉 중요한 대목의 선택 (Choice), 매력적인 제목(Charm), 스피디한 도전(Challenge). 이를 위해 꾸준한 독서가 있어야 하고 시심(詩心)에 입각한 언어감각이 뛰어나야 하고 미적 설계 능력을 키워야 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문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에 앞서 뉴스 밸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뉴스 밸류는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겹눈(複眼) 평가가 필수적인데 넓고 깊은 독서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독서력이 바로 식견(識見)

- 1975년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위해 설립
- 1978년 미국 Bechtel사 기술연수 직원 파견
- 1987년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 선정,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
- 1996년 미국 EPI 선정 "세계 최우수 발전소" 수상
- 2001년 한국표준형 500MW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북미시장 진출
- 2001년 미국 Power Engineering지 선정 "세계 최우수 Project" 수상
- 2008년 한국 원전설계기술 미국시장 진출
- 2009년 원전 종합설계기술 최초로 UAE 수출



한국전력기술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국전력기술 도전의 역사, 세계 속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오직 할 수 있다는 열정과 도전정신만으로
대한민국 원자력발전 및 전력산업의 역사를 한줄 한줄 써 내려온 한국전력기술
이제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Global Top 5 Power EPC 기업을 향한 도전의 새 역사,
세계를 무대로 써 내려 가겠습니다.

Global Power ON _ 한국전력기술, KEPCO E&C



한국전력기술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Global Top 5

文化街 산책

검양과 배려... 피플파워의 아름다운 퇴장

釜山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



김동호 위원장이 페어웰 파티에서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겪었던 일들을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퇴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도 그의 인간적 매력과 두터운 인맥의 반증이다.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전 총리)이 폐막식에 참석했고, 본회 원로회우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 장관은 연이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지미, 박정자, 문소리, 예지원, 김꽃비 씨 등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여배우들은 김동호 위원장과 춤을 추며 석별의 정을 풀어냈다. 그의 인간관계는 국경을 넘나든다. 프랑스 배우 줄리엣 바노시, 미국의 올리버 스톤 감독, 중국 거장 허우샤오시엔 감독, 칸 영화제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 등도 부산을 찾아 김 위원장과와 끈끈한 친분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겪었던 일들을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10여 개 단체에서 전달받은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등 부상을 모두 현금화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맥관리 치밀

김동호 위원장이 국내외에 걸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비결은 무엇일까?. 경기도, 서울대를 나와 여러 정권에 걸쳐 30여 년 동안 문화공보부 관료와 영화진흥공사 사장, 공론위원장 등을 지낸 주류 엘리트 관료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오산이다. 검양과 배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인맥형성의 키워드다. 댕이에 부는 바람결처럼 부드럽지만 대나무처럼 꺾이지 않는 선비로 흐트러짐이 없다. 박찬욱 감독은 “술 세고 청렴하고 온화한 이미지 뒤에는 지략가로서의 면모가 숨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대인관계의 원칙을 묻자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소탈하게 대하려 한다”는 소박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이와 성별, 직업을 떠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아랫사람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는 친화력으로 ‘敵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

는다. 공적인 자리는 물론 술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것도 검양과 배려의 미덕이다. 퇴임을 앞둔 한달 전부터 마스크의 인터뷰 요청이 밀려와도 거절하지 않았다. 영향력 있는 방송이나 신문을 선택하여 집중화 할 만도 한 데, 국내 모든 언론,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 영국의 ‘스크린 인터내셔널’과 대학신문 학생기자의 요청에도 성실하게 응하여 호감을 갖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주는 매개는 술이다. ‘김동호 패밀리’와 ‘서목 팬 부대’가 해운대 포장마차를 순회하며 술잔을 기울인 것도 인간적 교감의 폭을 넓혀 주었다. 남포동 포장마차에 빈자리가 없어 해외에서 온 게스트들과 길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술잔을 돌리던 광경은 전설이 됐다. 그의 폭탄주 실력은 ‘타이거 클럽(Tiger Club)’ 탄생의 계기가 됐다.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5명이 종신 멤버이고, 김 위원장은 ‘빅 브라더(Big Brother)’로 불리는 종신회장이다. 해외영화제에서 만나면 밤새워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관례라는 것. 김 위원장의 두주 불사 술 실력도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일흔 살이 되던 2006년 1월1일부터 매물차게 끊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제조하고 남들에게 권하는 ‘악취미’는 여전하다. 인맥관리 또한 치밀하다. 해외영화제에서 정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1년 후 다시 그 영화제를 찾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을 만날 장소에서는 꼭 선물 받은 물건을 착용한다. 해

외영화인들이 김동호를 ‘미스터 김’으로 호칭하는 것도 ‘친절한, 성실한, 유명한’ 등의 숨내가 담겨있다.

특히 인간관계가 돋보이는 것은 한결 같은 마음이다. 논산훈련소 내무반 동기들과 52년째 정기모임을 가질 정도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해관계에 얽혀 돌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恒心은 아침 햇살처럼 포근하고 붉은 노을처럼 황홀하다.

#아름다운 퇴임

김동호 위원장은 ‘부산영화제의 아버지’란 영예로운 칭송과 함께 영화제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고문이나 명예집행위원장 직책도 사양했다. “떠난 자가 한 다리를 걸쳐놓으면 다음 首長이 불편해 질 것”이라는 배려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회 영화제 이후부터 전용관 건립과 예산 확보만 되면 위원장 자리를 떠나겠다고 공언해왔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이용관 부집행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해 퇴임준비를 해왔다. 자신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올해도 발목이 잡힐지 않을까 언론을 통해 퇴임을 못박았다. 이 정부 들어 유난히 문화계 기관장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에 그의 퇴임은 그 어떤 영화의 해피엔딩 보다 아름답다. 공직생활 30여 년이 인생1막이라면 부산영화제 15년은 인생2막이다. 퇴임 후 펼쳐 갈 인생3막이 궁금해 물었다. “미술사와 서예, 한학을 공부하고 영화계 거장들을 만나 영화를 주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묶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한다. “포르투갈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 감독은 103세로 올해 칸영화제에 초청된 현역이다”고 전제한 뒤 “그 분보다 30살은 젊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의욕을 보인다. 언젠가 김동호가 찍은 다큐영화가 부산영화제에 초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1937년 강원도 홍천 출생. 중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 부산에서 4년 간 피란 생활을 한 것이 부산과의 인연이다. 1961년 문화공보부 주사보로 공직에 입문하여 문화국장 보도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영화진흥공사 사장(1988~92) 때는 밤새 술을 마시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설립하는 독심을 보였다. 예술의전당 초대 사장(1992), 문화체육부 차관(1992~93)을 역임했고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1993~95)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취임해 15년 동안 영화제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 공로상, 은관문화훈장,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오피시에’ 등을 받았다. 약사인 부인 홍명자(70) 씨와의 사이에 1남 2녀. [4]

지난달 15일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과 함께 15년 동안 영화제를 이끌어 온 김동호(73) 집행위원장이 퇴임했다. 부산영화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김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탄탄한 인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김동호 패밀리’

영화제가 열린 9일 동안 뽀뽀한 스케줄을 거뜬히 소화 해낸 폐막 다음날 아침. 김동호위원장의 초대로 해운대의 단골 해장국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났다. 아버지의 퇴임을 보러 미국에서 건너온 김 위원장의 아들과 손자 두 명도 참석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소회를 묻자 “담담하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가지고 온 양주로 해장술을 권한다. 15년 동안 거르지 않은 통과의례다. 변한 것은 본인은 술잔에 물을 담아 건배하는 것. 참석한 지인들은 서울에서 내려간 ‘퇴기(퇴직기자)’ 세 사람과 목포에서 온 ‘순민(순수 민간인)’ 3명으로 김동호의 ‘서목(서울-목포) 팬 부대’의 일원이다. 퇴기들의 팀장 박연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본회 회우)은 문공부 출입기자 시절, 보도국장인 김동호와 만나 36년 동안 인연의 맥을 끈끈하게 이어온 인물. ‘순민팀’의 간사 박삼석 씨는 박연호 위원장의 고향친구로 김동호 위원장이 오랜 공직생활 ‘休止期’ 때 휴가 차 목포에 들러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열렬 팬이 됐다. 김동호의 마음을 끌어내는 친화력과 박삼석의 복선 없는 순수한 共鳴의 波長이 20년 넘게 이어졌다. 해장국집 주인은 경북 봉화에서 구입해 온 송이 요리를 대접하며 연신 “아쉽고 섭섭하다”고 말 한 것도 떠나는 김동호를 생각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대변한다. 인기배우도 유명감독도 아니지만 김 위원장에겐 팬이 많다. 부산의 택시기사, 포장마차주인, 식당종업원, 자원봉사자와 시민들도 그를 만나면 사인을 요구한다. 연극배우 박정자 윤석화, 가수 노영심, 임권택 감독, 영화배우 안성기 강수연 등은 문화계의 ‘김동호 패밀리’로 알려진 절친사이다. 부산영화제 출범부터 인연을 맺은 국민배우 안성기 강수연은 김동호 위원장의 퇴임을 기리기 위해 폐막식 사회를 맡았다. 음악인 노영심은 ‘지금이 사랑이다’를 작사 작곡하여 송별연에서 석별의 노래를 불렀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통한다는 게 한국인의 ‘사회 연결망’이다. ‘김동호 패밀리’와 ‘서목팬 부대’는 자연스레 한통속이 되어 연례행사로 부산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이나 행사기간 때 들르면 바쁜 스케줄로 김 위원장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폐막식 하루 전인 14일 밤,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페어웰(Farewell) 파티에 영화계 인사는 물론 정·관계 인사, 지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그의 퇴임을 아쉬워 한 것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먹은 점심



녀석들과 [같이] 간 훈련소



가족과 [같이] 가꾼 텃밭



친구들과 [같이] 똘 달리기



손녀와 [같이] 걸은 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에 [같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NH농협이 만들어가는 [같이]사는 세상입니다

같이의가치



8선녀의 꿈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溫故知新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 성진이 말을 마치고 복숭아꽃 한 가지를 꺾어 선녀들 앞에 던지니, 네 쌍의 붉은 꽃봉오리가 즉시 밝은 구슬이 되어 상서로운 빛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고 비추어 마치 조개의 태에서 나온 진주 같았다. 8선녀가 각각 한 개씩을 주워서 성진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고 몸을 솟구쳐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에 우두커니 서서 머리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 한참 있다가 구름은 흩어지고 향기로운 바람은 모두 사라져 마치 무엇을 잃은 듯 멍하였다. -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구운몽'의 한 대목이다. 서포는 조선 숙종 때의 정치가요 학자요 대문장가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김만중은 효성이 지극한 만고의 효자였다. '구운몽'도 옛이야기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가 귀양살이를 할 때에 지은 것이다. 예나 이제나 세상에 나와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노라 행세하는 사람은 많지만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목한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서포는 충효와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진정한 인격자였다. 그의 지극한 효성에 대해 이재(李穡)의 '삼관기(三官記)'는 이렇게 전한다.

-서포 김공의 효도가 매우 지극했다. 어머니의 사랑도 지극했지만 또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즐겁게 해드리려는 모습은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 앞에서 빼악 빼악거리는 것과 같았다. 부인은 옛 역사나 이상한 사실을 적은 책을 좋아했으므로 서포는 많은 이야기책을 모아 밤낮으로 그것을 읽어드리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렸다. -서포가 3년간 귀양살이하며 극진한 사모의 정으로 몸부림치고, 숙종의 어두운 처사를 풍간(諷諫)하며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는 한글소설 '사씨남정기'를 쓰던 유배지, 덧없는 인생살이를 관조하다가 파란중첩했던 한 삶의 막을 내린 마지막 유배지 노도(峯島)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벽련마을 앞 속직 앵강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그가 외롭고 괴로운 귀양살이 끝에 이승을 등진 유배지는 이제 잡초 무성한 폐허로 변했지만, 섬 들머리 나루터에는 그의 위대한 문학정신과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서포 김만중의 일생은 바다에서 시작되어 바다에서 끝맺었다. 그는 인조 15년(1637) 음력 2월 10일 병자호란 중 강화도 인근 바다 위에서 태어났다. 피란 중인 배 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사실부터 그의 파란중첩한 일생을 예고하는 듯했다. 병자호란이 치욕스러운 항복으로 끝난 뒤 불과 21세에 청상과부가 된 어머니 해평 윤씨는 다섯 살 위인 형 만기와 만중 형제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시집도 친정도 모두 명문가였으나 그녀는 궁핍한 전란 직후라 몸소 길쌈을 하고 수를 놓아 부모를 봉양하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다.

만기와 만중 형제는 이처럼 자애롭지만 엄격한 어머니의 훈육 덕분에 스승이 없이도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나아갔다. 윤씨 부인은 난중에 지아비를 잃고 어렵게도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토록 소박한 차림에 검소한 음식으로 지냈다. 그런 어머니였으므로 두 아들의 효성 또한 남달리 지극했다. 두 형제는 공무가 없으면 날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해드리려고 다투다시피 했다. 하지만 행복

한 날들은 빨리 지나가 버렸다. 처음 10년간은 비교적 순탄하던 벼슬길이 가시밭길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서포는 권모술수와 처세술에 능한 소인배를 싫어했고, 좀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높고 깊고 넓은 지식과 재주를 가슴 깊이 감춘 채 평소에는 어리석은 듯 얼굴을 숙이고 몸을 낮추어 늘 겸손하게 처신했지만,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묻어두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에 계속 관운이 좋을 수 없었다. 또 그는 송시열, 김수흥, 김수항 등과 더불어 서인에 속했으므로 대체로 서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벼슬길에 오른 반면, 남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파직과 유배를 당하는 등 영욕이 엇갈렸다. 현종 14년(1673) 9월에 영의정을 탄핵하다가 강원도 고성으로 첫 번째 유배를 당했고, 숙종 5년(1679)에 다시 조정에 나아가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부제학, 도승지 등을 거쳐 대제학에 올랐지만, 숙종 13년(1687)에 임금이 후궁 장씨(장희빈)에게 빠져 쓸모없는 인물을 중용하는 처사를 충간하다가 또다시 과심죄에 걸려 함경도 선천으로 두 번째 유배를 당했던 것이다. 백발의 어머니가 귀양 가는 50객 아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애야, 귀양살이 간다는 것은 옛적 훌륭한 어른들도 오히려 면치 못하던 일이었다. 가거든 스스로 몸을 돌보고 어머니 걱정은 말아라."

'구운몽'은 서포가 선천에서 귀양살이하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걸작이지만, 또한 자신이 응시, 관조, 통찰한 인생관을 담은 깨달음의 결정체이기도 했다. '구운몽'의 줄거리는 이렇다.

-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과 무대는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어느 화창한 봄날 스승의 명으로 동정호 용왕에게 문안을 갔다가 역시 위진군의 시녀 8선녀를 만나게 된다. 미목이 수려한 성진과 하나같이 아리따운 8선녀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그윽한 연정을 주고받는다. 절에 돌아왔으나 성진은 8선녀의 황홀한 꿈에 젖어 속세의 부귀영화를 그린다. 성진의 속마음을 읽은 육관대사는 제자를 꾸짖고 지옥에 떨어뜨려 인간세상에 환생케 한다. 그가 주인공 양소유. 한편 8선녀도 부처님의 청정한 도량을 어지럽혔다 하여 역시 육관대사에 의해 지옥에 떨어졌다가 인간세상에 환생한다. 8선녀는 정사또의 딸 정경패, 황제의 누이 이소화, 진여사의 딸 진채봉, 낙양명기 계섬월, 하북명기 적경흥, 동정호 용왕의 딸 백능과, 여자객심요연, 정소저의 시녀 가춘운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 출세가도를 달린다. 승상 자리까지 오르는 동안 차례로 8선녀와 인연을 맺어 정소저, 이소화를 첫째와 둘째부인으로,

로, 나머지 여섯 여인은 모두 소실로 거느린다. 양소유의 지극한 부귀영화를 그 누가 따를수가! 그러나 세월은 덧없이 흘러 벼슬에서 은퇴한 양소유는 지나온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게 된다. 양소유는 마침내 불문에 귀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결심한다. 이때 한 노승이 나타나 그를 인도하겠노라 나선다. 노승은 젊고 있던 선장으로 난간을 딱 친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며 주위의 모든 것을 휩싸는 것이 아닌가. 양소유는 다급하게 소리치나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다. 얼마 뒤 연기가 사라지자 자기가 살던 대저택도, 아름다운 여덟 부인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의 손목에는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도 뺑뺑 깎은 중머리로 변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화려했던 한 삶이 모두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자신은 틀림없이 불도를 닦는 까까중 성진이지 승상 양소유가 아니었다. 육관대사께서 하룻밤 꿈으로 인간세상의 부귀, 공명, 영화의 덧없음을 깨우쳐주셨구나! 세수를 하고 스승께 달려갔더니 육관대사는 인간세상의 재미가 어떻더냐고 묻는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성진은 더 큰 법을 간청한다. 이때 8선녀가 들어와 불제자가 되기를 청원한다. 나중에 대사는 도통을 성진에게 물려주고 서역으로 간다. 성진은 8선녀와 더불어 수도에 정진, 모두 극락으로 가게 된다. - 그렇다! 삶이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고 부질없는 것, 벼슬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똑같이 유한한 것, 한바탕 백일몽처럼 어지러운 것이다. 서포가 유학으로 입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인생관으로 8선녀의 꿈을 그린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후궁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

종은 이를 나라의 경사라면서 사면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포의 귀양도 풀렸다. 하지만 그 이듬해 일어난 기사환국으로 세상은 또다시 발각 뒤집혔다. 장희빈을 등에 업은 남인의 집권으로 서인은 완전히 몰락하고 서포는 간신히 목숨이 붙어 머나먼 남해 노도로 세 번째이며 마지막인 귀양길에 올랐다. 만아들을 먼저 보낸 80노모를 두고 귀양길을 떠난 서포의 비통함이 어찌했으랴. 서포는 절해고도의 한 귀퉁이에 쓸쓸히 앉아 지나온 이승살이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았을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벼랑 아래 끊임없이 밀려와 흰 거품으로 부서지는 파도와 휘휘 나는 갈매기들, 점점이 떠 있는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돛단배들, 저 바다 저 하늘 위로 떠가는 흰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귀, 공명, 영화도 한바탕 꿈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지없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서포가 민 중전을 폐서인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에 앉힌 숙종의 어두운 처사를 풍간하기 위해 한글소설 '사씨남정기'를 지은 것도 남해 유배시절이었다. 그해 3월 7일 귀양길을 떠났는데, 그해 12월 25일에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온통 가시밭길 같았던 73년의 세상살이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 소식을 서포는 이듬해 초에야 들을 수 있었다. 부음을 들은 서포의 가슴은 미어질 듯했다. 머나먼 남쪽 바다 한가운데 갇힌 몸으로 임종조차 못한 불효자가 되었으니 그의 애통함을 어디에 비기랴. 나이 지긋하여 서도 노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마다 생신날이면 늙은 두 형제가 색동옷 입고 언니가 피리불면 아우는 춤추던, 그렇게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제 우리 어머니 차가운 지하에 말없이 누워계시겠구나. 아아, 어머니! 어머니! 서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붓을 들어 어머니의 행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8월 '정경부인 해평윤씨 행장'을 쓰고, 다시 해가 두 차례 바뀐 숙종 18년(1692) 4월 30일에 서포는 애통한 가슴에 병까지 골수에 스며들어 파란만장하고 중첩했던 한 삶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서포 김만중은 그렇게 쓸쓸히 유한(有恨)하고 유한(有限)한 일생을 마쳤지만 그가 남긴 문학작품은 국문학사에 길이 빛나고, 그의 지극한 효심은 만고효자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4]

회우子女동정

서양화가 홍수연씨(홍원기 회장딸)초대전

서양화가 홍수연씨의 열 번째 개인초대전이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간동 '프랜트'화랑(722-2826)에서 열린다.

홍씨는 홍익대학교미술대학 서양화와 동 대학원 및 미국 프랫(Pratt Institute Fine Art)대학원을 졸업한 뒤 뉴욕에서 10여년 간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홍익대학교대학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 장녀이다.



Still life space.

지난 9월말부터 불어 닥친 배추과 동--- 기껏해야 3천원이면 살 수 있던 통배추 값이 그 5배인 1만 5천원으로 뛰었으니 주부들 야단이 아닐수가 있는 가... 배추 값이 뛰었다고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이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는 4대강 때문이니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한 정치인들은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국록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라니 참으로 정치 노선에 따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게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난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 언제 배추가 자랄 수가 있었겠나? 평평 쏟아지는 비에 모종도 다 휩쓸려가고 거기다가 일부 지방에서는 냉해까지 입었으니 배추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된다. 요즘 배추 파동을 보니 1977년 여름이 생각난다. 그때 난 동양방송 (TBC)보도국의 농수산부(현재 농림부) 출입기자였다.

그해 유난히도 날씨가 더웠고 가뭄도 겹친 때였다. 당시엔 강원도 평창 등 고랭지에서 여름에도 겨울철 김장김치 처럼 통배추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는 포기 배추를 길러 농민들이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그 덕분에 서울 사람들은 여름에도 김장김치 처럼 맛있는 통배추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어 고랭지 배추는 큰 인기를 누렸었다. 당시 만해도 여름엔 지난해 담근 묵은 김장김치를 먹거나 그 게 싫증이 나면 열갈이 배추김치를 버무려 먹거나 양배추 김치, 열갈이 물김치, 또 열무김치를 담가먹었고 아님 오이지를 담가 여름내내 먹었었는데 오이지는 동그랗게 송송 썰어 오이 물김치, 오이지를 반으로 잘라 그걸 네 쪽으로 내서 물에 담그거나 그냥 먹거나했는데 아삭아삭한게 짹짹해서 오이지 두개면 밥 한 그릇 푹딱 이었다. 또 오이에 부추 속을 넣은 오이 소박이도 맛있는 김치반찬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우리

배추가 ‘금추’가 된 사연

取材비화



이보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해설위원

여름 식단이 겨울에나 먹을 수 있었던 싱싱한 통배추로 바뀌게 됐으니 정말 ‘배추 혁명’이 아닐수 없었다. 겨울에나 먹을 수 있는 통배추김치를 한여름에 먹을 수 있으니 혁명이란 말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때 고랭지에선 가뭄이 심했고 냉해까지 겹쳐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도회지 상인들이 고랭지 배추를 발떼기로 사들여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었다. 당시 1천원 미만 이던 배추 한통이 3천원이 넘었으니 난리가 날 법했다. 당시 신문, 방송은 맨날 배추 값이 너무 뛰었다고 야단법석--지금도 그렇지만 마스크들 호들갑은 정말 알아줘야했다. 그런데 나도 한 통속이었으니 짜짜-- 들이였다.

‘금추’란 말이 탄생 되던 날---

여느 때 처럼 농수산부 기자실(지금의 광화문 종합청사)에 나와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단다. 데스크에 연락을 하니 내일 아침 ‘뉴스전망대’에서 ‘배추파동과 그 대책’에 대해 대담 방송을 하라는 지시였다.

당시 뉴스 전망대 앵커는 봉두완 논평위원이었다. 부랴부랴 녹음기(당시 녹음기는 크기가 지금의 PC 앞면의 4분의 3정도 크기, 그래서 당시 방송기자들은 녹음기를 아이스케기 통이라고 불렀다)를 챙겨 식량차관보를 찾아가 배추수급 계획에 대한 취재와 함께 그의 코멘트를 녹음한 후 바로 동대문 시장에

로 달려가 배추를 사러 나온 아주머니와 배추장수의 말을 녹음한 뒤 회사로 들어가 내일 방송을 준비했다.

다음날 아침 8시 뉴스전망대 방송시간- 내가 두 번째 아이টে 으로 출연했다.

봉두완 앵커: 이 기자가 어제 시장에

나갔었다고 하는데 그래 배추 값이 얼마나 하던가요? 이보길 기자: 네 배추값은 말 그대로 한포기에 3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배추는 하도 귀하고 비싸서 ‘배추’는 ‘금추’로, 또 ‘김치’는 ‘금치’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봉두완 앵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금추, 금치라.... 그때는 그래도 화폐가치가 높아 3천원이면 지금 1만5천원보다 비싸면 비쌌지 않겠다고 생각이 된다. 배추 값은 오르기 이전에 1천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당시 TBC의 ‘뉴스전망대’는 방송 5사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름을 날리던 프로였다. 소위 고위관리들도 출근 차안에서 이 프로를 꼭 듣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봉두완 앵커의 멘트는 장안의 인기였고 코미디언도 봉

앵커가 프로말미에 하던 멘트를 따라하곤 했다.(지금도 코미디언 강 석씨는 자신의 프로 말미에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다.)

물론 나와 같이 배추 값 방송을 한 날 봉두완 앵커의 끝 멘트는 역시

“1977년8월 0일 뉴스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배추가 금추가 됐습니다”였다. 이 방송이 나가자 ‘금추’는 금방 장안의 화제가 됐고 그날 석간신문은 일제히 배추를 ‘금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배추 값이 비쌀 때마다 배추는 금추로 불리고 이전 어느 신문을 보니까 ‘다이아추’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무조건 값이 비싼 건 다 ‘금’자를 갖다 붙이곤 한다. 하긴 요즘 금값은 한 돈 그러니까 3.75그램에 22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금이란 말을 붙일만하다.

이렇게 배추가 금추로 불린 것이 어언 했수로 33년이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33년만에 ‘금추’가 다시 돌아왔으니 ‘금추’라고 처음 작명한 나로서는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다. 33년이 지났는데도 담당부처는 이런 파동에 찢찢 매기 일쑤이고 뒷북치기 정책을 내놓는건 이제나 저제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그래도 이번엔 발 빠르게 수입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런 파동 때마다 발떼기로 사들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중간상인들은 항상 무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천정부지로 배추 값이 올랐어도 이미 중간상인들에게 발떼기로 넘긴 농민들의 호주머니는 늘 알뜰 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고 보니 ‘말이 씨 된다’고 ‘배추’를 ‘금추’로 작명한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일부 낭보가 전해 오긴 한다. 김장때가 되면 지금 ‘금추’는 작황이 제대로 돌아와 ‘배추’값을 하겠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난 ‘배추’가 ‘금추’가 아닌 ‘배추’로, ‘금치’가 ‘김치’로 제 이름을 되찾을 날이 어서 오길

6·25 피란시절은 누구나 궁색하고 보잘것 없는 때였다. 국방부는 전시 징발법을 발동, 부산 수정국민학교에 터전을 잡았다. 장관실은 운동장 입구 맞은편 오른쪽 2층 교실하나를 차지 했다.

어린이들은 학교 뒷산기슭으로 쫓겨나, 소나무가지에 작은 칠판하나를 걸여 놓고 맨 땅바닥에 앉아 그래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다. 갓 날은 다행이지만 비라도 오는 날은 도리없이 집으로 돌려 보냈다. 나는 민주신보에서 첫 출입처가 국방부였다. 어느날 어둑어둑한 저녁무렵 장정호(뒤에 한국일보 기자)가 찾아왔다. 그의 끝은 동가식(東家食) 서가숙(西家宿) 한 듯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 미혼으로 누님 집에 기식하고 있을 때이고 그를 외식을 시킬 형편이 못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변변한 찬은 아니지만 저녁밥상을 겸상으로 차려준 누님이 무척 고마웠다.

장정호는 나보다 먼저 밥한그릇을 비웠다.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서 잡담을 하고 있는데 자형이 불렀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행색이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누구냐”고 다그쳤다. 나는 내심 찢렸으나 일제때부터의 동창이라 의심할 점이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장정호와 신창우

없다고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지는데 장정호가 숙내를 털어놓았다.

“나 내일 서부전선을 넘어 인민군쪽으로 건너간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나는 가슴이 확 막혔다. “너 이쪽에서 무사히 넘어 가더라도 인민군에게 잡히면 바로 총살이야!” “난 인민군에게 총살되면 웃으며 죽을수 있어”

무슨 값싼 낭만도 아니고, 장정호의 계획은 같은 동기생인 신창우가 KLO부대원으로 있는데 그의 안내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여러 상념이 떠올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서두르고 장정호와 작별했다.

취재와 기사작성에 쫓기는 나날이라 장정호의 일은 쉽게 잊고 있는 어느날 편집국에 신창우가 나타났다.

무슨일이 터졌구나 직감했다. 지금 마감직전 매우 바쁜 시간이니 신문사 근처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석간 마감을 하고 약속한 다방으로 갔다. 신창우는 매우 고자세였다.

“너 장정호를 하룻밤 재워주었다며” 그 친구 넘어가자마자 내 정체를 인민

군에게 폭로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수감 이 채워지고, 이전 죽었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 그날밤 인민군 감시병이 잠든 사이 수갑을 풀고 구사일생으로 사지를 벗어 났다고했다.

눈치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를 하룻밤 재워준것 뿐인데, 자네는 자업자득이지 그를 월경시킨 장본 인이야. 내 단호한 태도에 그는 말없이 물러났다. 신창우와 헤어지고, 내 입안은 무슨 쓸개를 씹은양 몹시 씹쓸했다.

무사히 넘어갔으면 입을 다물것이지 두 친구를 배신하다니.

해방후 장정호는 서울대예과에 다녔고 나는 잠시 낭인이었을때 한 하숙방에서 뒹굴면서 가끔 내려더 반동분자라고 놀렸으나 웃고 넘어갔다. 그러나 장정호는 일주일에 몇번씩 대로에서 배라를 뿌리고 구호를 외치고 경찰 포위망을 뚫고 먼 하숙집까지 뛰어서 도망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세월의 흐름은 빨라 어느덧 수십년이 지나갔구나. 그와는 애증이 교차하는 친구였다. [필자]

斷想

청문회와 국회의원 자질

국어사전을 보니 청문회(聽聞會)를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관계인이나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모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중학생인 손자에게 청문회가 무엇이라고 물어봤다. 명답(名答)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어른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혼내는 거 아닌가요?” TV의 청문회 중계를 시청할 때마다 저런 청문회와 중계를 왜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군자공화국(君子共和國)은 아니겠지 하는 생뚱맞은 생각을 하곤 했었다. 먼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 인사가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그 자리를 맡겠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나기도 했다. 더 참기 힘든 일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리 폭로에 매달리는 정파들과 무조건 감싸기에 올 인하는 파당들의 작태였다. 그런 일, 저런 말을 하는 데도 적잖은 세금이 들어 갈 터이니 더욱 그랬다.

오죽했으면 정진석 추기경이 국회에서 품격 있는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고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을까? 어느 종교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공감했다. 그 글의 서두이다. “국회에서 행해지는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자면 그 자리에 불러갈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몇 십 년 전의 일까지 다 들춰내서 추궁하고 호통을 치니 허물이 많고 기억력이 둔한데다가 자존심만 강한 나 같은 사람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는 이어 아브라함이나 다윗, 요셉 같은 지도자들도 허물이 많았고 기독교 전파의 일등 공신인 바울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한 중죄인이었으니 하늘나라에서는 통과했겠지만 우리 국회 청문회에 나온다면 추궁과 꾸짖을 그리고 질타에 금방 무너지고 깨지고 말 것이라고 썼다. 공자가 청문회에 나왔다면 뜻을 이루려는 용기도 재주도 없는데다 시도를 해보지도 못한 채 말만하고 돌아다니는 그를 우리 의원님들은 뭐라고 꾸짖을 것인가? 그리고 공자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 변명할 것인가? 영국의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 지은 책 ‘지식인의 두 얼굴’은 우리가 몰랐던 지식인의 또 다른 진실을 파헤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이 책에서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자기 아이들을 고아원에 내다 버렸으며 노동자 해방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는 40년 넘게 가정부를 착취했고 여성과의 교제가 사회악이라고 여겼던 톨스토이는 사창가를 드나들었다. 또 ‘노인과 바다’의 헤밍웨이는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였다”고 썼다. 그들도 저러했거늘 우리는 정말 당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전KBS LA지국장
- 수필가

당할 수 있는가? 그들과 달리 나는 떳떳한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모두가 한번은 되새겨 볼 일이다. 사람이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자칫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잊고 사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리라”는 성경 말씀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신 가르침이 가슴을 파고든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지도자라면 다른 정치인들의 잘못을 얘기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되돌아보고 보다 깊이 있게 자성해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일부에서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도덕적 기준의 미확립, 여론에 따라 판정이 내려지는 포퓰리즘의 문제, 같은 행위에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기준의 허술함 그리고 청문회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증인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기 고집을 강조하며 증인의 입은 틀어막는 억지 진행 등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사 청문회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 첫째로 도덕성 검증은 후보를 내는 청와대가 완벽하게 맡아 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200여 항목의 ‘예비 질문지’를 만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사전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예비 설문지를 만든 배경일 터이다.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도덕성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해서 일단락을 지은 뒤에 국회 청문회에 넘겨야 한다. 두 번째로 국회 청문회는 그 공직 후보자가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능력을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발명협회 회장을 지낸 한 기업인은 겨우 겨우 회사를 꾸려가면서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상공부장관은 실전 경험이 넘치는 나 같은 놈이 해야 하고 치안본부장은 조세형 같은 대도 출신을 시켜야 한다”고 퍼붓곤 했다. 그의 낯두리가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나라를 이끌 기본 철학은 대통령의 몫이며 총리와 장관 등은 그 철학을 따르며 구현하는 실행자이고 디딤돌이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청문은 기능성과 전문능력이 보다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하라는 건의를 해본다. 물론 반응은 없을 테지만 말이다. 청와대에서 청문회에 대비해 ‘200문항의 예비 질문지’를 만든다고 했으니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는 절반인 100문항 정도의 자체 검증서(檢證書)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했으면 한다. 국회의원 출마와 동시에 자기 검증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언론사에도 배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

김도진 회우 별세 언론인葬 엄수

김도진 회우가 향년 70세로 10월 25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타계했다. 김도진 회우는 1940년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 중앙고와 건국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67년 KBS 보도국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지국장을 거쳐 보도국장, 교육방송국장, 방송연구원장, 종합조정실장, 경영기획본부장, TV본부장, KBS 방송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서울국제위성방송뉴스 사장, 대



김도진 회우

한언론인회 부회장을 지내기도한 고 김도진 회우의 영결식은 천주교 의식으로 치러졌다. 유가족으로 부인과 기한(서울대 교수) 시연(아시아태평양법률고문 겸 이사) 두 아들과 1녀를 두었다.

대한언론인회는 10월 26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흥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 임원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언론인회 언론인장(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본회 조창화 명예회장은 조사를 낭독했다. [4]

故 김도진형을 보내며

조창화(본회 명예회장)

삼가 김도진형의 영전에 추모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형과 저는 인생의 황금기인 30, 40, 50대의 30여년을 KBS에서 함께 지낸 곁으로 하여야 끊을수 없는 인연의 삶을 공유했었습니다. 그것도 보도라는 한 우물에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1975년 3월 김형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저는 도쿄특파원으로 같은 날 발령을 받은 것도 우연은 아닐것입니다. 4년여의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



고 김도진회우 영결식장에서 조사를 읽는 조창화 명예회장.

도국장, TV본부장, 종합조정실장등 KBS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타고난 판단력과 전광석화와 같은 실천력으로 오늘의 KBS토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KBS를 그만 둔 후에는 국제위성방송뉴스를 조직하여 급변하는 전파미디어의 전개과정을 몸소 실천하기도 하셨습니다. 위성방송뉴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때에 디지털화를 예고하며 그 실천에 앞장 섰던 분도 바로 김형이셨습니다. 신장투석이라는 오랜 투병생활에서도 항상 적극적이며 쾌활한 모습으로 주변을 리드하신 분도 바로 김형이셨습니다. 지난 7월 27일 느닷없이 차 한잔하자며 저를 메리어트호텔 커피숍에 불러낸 김형은 “조형이나 나나 이북에서 내려와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다”면서 “아마 나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것” 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이별을 고하는 말인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김형은 자신의 최후를 예견했던게 아닌가하는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형의 제안으로 8월 5일 대림정에서 냉면을 먹기로한 약속은 김형이 없는 저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때 김형은 입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먼저 가신 김형,

마지막 순간까지 ‘한민족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분서주했던 김형의 그 열정, 그 실천력을 우리는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형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후배들에 의해 김형의 꿈이 이어지기를 기원 할 뿐입니다. 가는 순간까지 방송의 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김형,

부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4]

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당당하고 떳떳한 국회의원을 뽑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체 검증서에 기록한 문항에 거짓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함라미달의 정치인들을 걸러내고 의정을 바로잡는 기틀도 확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모든 정치의 기본이고 바탕일진대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인 검증과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의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를 통해 포퓰리즘에 녹슬어가는 압축 민주주의의 병폐를 줄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제약하는 법제화에 나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만일에 그러한다면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고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들을 다그칠 때에도 국민들이 시원해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에 당당하고 떳떳한 선량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에 나오는 인사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담당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넓은 소양으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4]

회우동정

(가나다순)

세계 차연합회장 선임



박권흠 회우(한국茶人 연합회장)=최근 대만에서 열린 세계 차 연합회(WTU)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실버 TV회장 취임



신광식 회우=10월 1일자로 (주) 실버방송 회장으로 취임했다. 실버방송은 스카이라이프 CH 534에서 시청할수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 국제세미나



이태교 회우=11월 10일 을지로입구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만언론계 시찰



조용중 회우=지난 11월 15일부터 4일간 대만 언론계를 둘러보고 19일 귀국.

독도찾아 국토수호결의대회



제재형 본회고문=독도수호학회와 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로서 10월 7~9일 회원 150여명을 인솔하고 독도를 탐방, 독도수호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회봉사대상' 심사위원장



천상기 회우(경기대 초빙교수) = 월드그린 환경연합과 인터넷신문 N daily news가 공동제정한 제10회 '2010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심사평가 위원장에 위촉.

'4·19 데모와 계엄군' 증언 녹취



최원각 원로회우= 10월 28일 정부기구인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4·19 데모와 계엄군을 주제로 당시 상황을 장시간 증언 녹취. 대담자는 4월혁명 50주년 특별사업 현종철 팀장. 최회우는 4·19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다.

10월 11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0월

1일 오전식 위상욱 이병국 최재욱 3일 김태선 홍용수 4일 권혁만 장석훈 5일 오동환 6일 서동구 이두환 이세환 조동표 7일 이규섭 8일 김규문 김성환 박 실 이 철 임판호 9일 정건일 10일 유한준 11일 이준기 12일 윤익한 14일 손기상 신경식 이한수 15일 정두진 16일 문문성 최영정 17일 고재혁 이병삼 18일 조창화 19일 이석희 최무룡 20일 박창신 이상근 주영관 23일 조용중 24일 윤기병 조봉균 25일 박권상 천상기 26일 구본건 현영건 28일 김한길 29일 최서영

11월

1일 이은명 2일 민병문 3일 임현태 장행훈 4일 정구중 조성하 6일 임한순 7일 유승택 이남규 조광식 8일 남선현 이용호 한동원 9일 노상국 이상호 10일 이병대 11일 민규호 12일 신상현 13일 김경태 박동은 박정하 정운종 14일 최병국 한상규 15일 김병모 이배국 이창호 16일 김영대 17일 박정진 민정기 18일 한강수 김광섭 인보길 윤상철 19일 신동호 20일 송호빈 유지호 이윤래 22일 이영일 23일 고재봉 신동철 안병훈 최금녀 24일 객찬호 25일 김운영 박미정 이승남 26일 고의구 김수웅 윤기로 27일 김병무 김원달 김주철 28일 이구열 30일 한기호 김성수 최종철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바둑대회

11월 8일 무교동 서울기원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첫 바둑대회가 오는 11월 8일(월) 오후 1시 무교동 서울기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A조(1~3급), B조(4~6급), C조(7급이하)로 나누어 치러지며, 대국방식은 당일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대회 후 송년 저녁모임을 겸하기로 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본회 사무실 (☎02-732-4797~8) 또는 김윤석 기우회 총무 (016-288-0674)

▶ 연회비 납부 ◀

2009년분 김호기 장순재 정운종

2010년분 김병모 김수웅 김용발 김천길 김춘빈 김호기 노영태 신광식 안평선 유용현 위상욱 이동훈 유한준 장순재 정운종 최종철 홍용수

▶대한언론인회 인사◀ 편집위원 : 김영환 (전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언론사 社友會 소식

경향신문

12월 1일 송년모임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이형균)는 12월 1일 오후 6시 언론재단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국민일보

회보 KMC 발행

국민일보 사우회(KMC)는 지난 9월 15일자로 회보 제2호를 발행했다. 함정운 회장(분회 회우)의 연임 인사말 '402호실의 풍경'을 비롯 이규섭 본보편집위원의 동정들이 실렸다.

동아일보

'동우문고' 개설, 회보 18호 발간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는 주요사업의 하나로 가칭 동아문고를 개설하기로 했다. 동우문고는 동우들의 각종출판물을 한 자리에 모아 영구 보존, 열람진열함으로써 동우들의 노력의 결정과 그 저력을 과시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우회는 지난 10월 18일자로 동우회보 18호를 발행했다. 회보엔 동우문고개설 소식과 회우들의 다양한 칼럼들이 실렸다. 이 중엔 안평선 본회 회우의 '동아방송 중단 30년 그날을 생각한다.' 박경석 회우의 '김씨 왕조 북한 어디로 가나' 이병대 본회 부회장의 '장하다 놀랍다! 고맙다!' 조강환 회우의 '참다운 공직자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어야' 윤양중 회우의 '김성한 선생 발자취' 권도홍 회우의 '100세를 사는 힘' 김광희 회우의 세정낙수 '줄타의 인연' 등의 칼럼이 돋보인다. 동우초대석은 이해복 본회 고문을 양면에 걸쳐 대서 특필했다.

12월 14일 송년모임

동아일보 사우회는 12월 14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 겸 송년 모임을 갖는다. 동우회는 또 새 회원명부를 발행하기 위해 회원 주소등 변동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선일보

회보 8호 발행, 12월 15일 송년모임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는 10월 27일자로 회보 '조우'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판 20면으로 발행 된 회보는 12월 15일 송년모임 안내 기사를 비롯, 김종헌 본회 회우의 '나의 편집기자 수첩' 이종식 남재희 회우의 '인생고백' 김철 회우의 '그때 그사람', 김용발 회우의 '쉽고 재미있는 인류 이야기' 등의 기사가 실렸다.

중앙일보

중앙매스컴회보 154호 발행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재봉)는 10월 25일자로 회보 '중앙매스컴 사우회보 154호'를 발행했다. 회보는 매월 발행되며 이번 호에는 'TBC북원은 중앙일보종편으로' 제목의 톱기사와 사우회 41명 경주 유적지 관광, 정규웅 전 문화부장의 '글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출판소식등이 실렸다.

한국일보

12월 7일 송년모임

한국일보사우회(회장 김충한)는 12월 7일(화요일) 오후 5시 남대문로 1가 한국일보 본사 26층 대강당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KBS

연로회우 초청 오찬 모임

KBS 사우회는 지난 10월 21일 낮 12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75세 이상의 연로 회우들을 초청, 오찬을 베풀고 사우회창단 공연과 여흥 그리고 정성어린 선물도 증정했다.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

KBS 사우회는 지난 9월 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 전문가와 사우회회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융합시대의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효율적인 방송심의제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김수웅 사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사우회가 은퇴한 방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SBS

창립 4주년 기념식 가져

SBS 사우회는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사우회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공식기념일은 9월 5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 관계로 기념식을 앞당겼다.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사우회 생일답게 인근 식당에서 우의를 다지는 등 하루 종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SBS 사우회는 또 창립기념 바둑대회도 열었다. 대회는 3급 이상 A조, 4급 이하 B조로 나누어 각 조별 토너먼트로 대국을 진행했다. 또 오는 11월 24일 저녁에는 SBS 목동사육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는다.

▶ 주소변경 ◀

이흥기 회우 =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331 두산아파트 103동 502호
제재형 고문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406 한가람 아파트 219동 504호
조광식 회우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4-18 2010호(우143-903)

▶ 결혼 ◀

김충한 회우 = 10월 23일 청담동 성당에서 아들 건동 군 결혼

장순재 회우 = 10월 29일 오나르바이 오스티엄(역삼동 리더스뷰 1층)에서 둘째 딸 소미 양 결혼

이배영 회우 = 11월 6일 애플러스 컨벤션 웨딩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차남 인성군 결혼

▶ 부음 ◀

황선용 회우 부인상 = 10월 30일, 발인 11월 2일 오전 7시 30분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를 약속합니다.
2010.11.11 ~ 12

400만, 그루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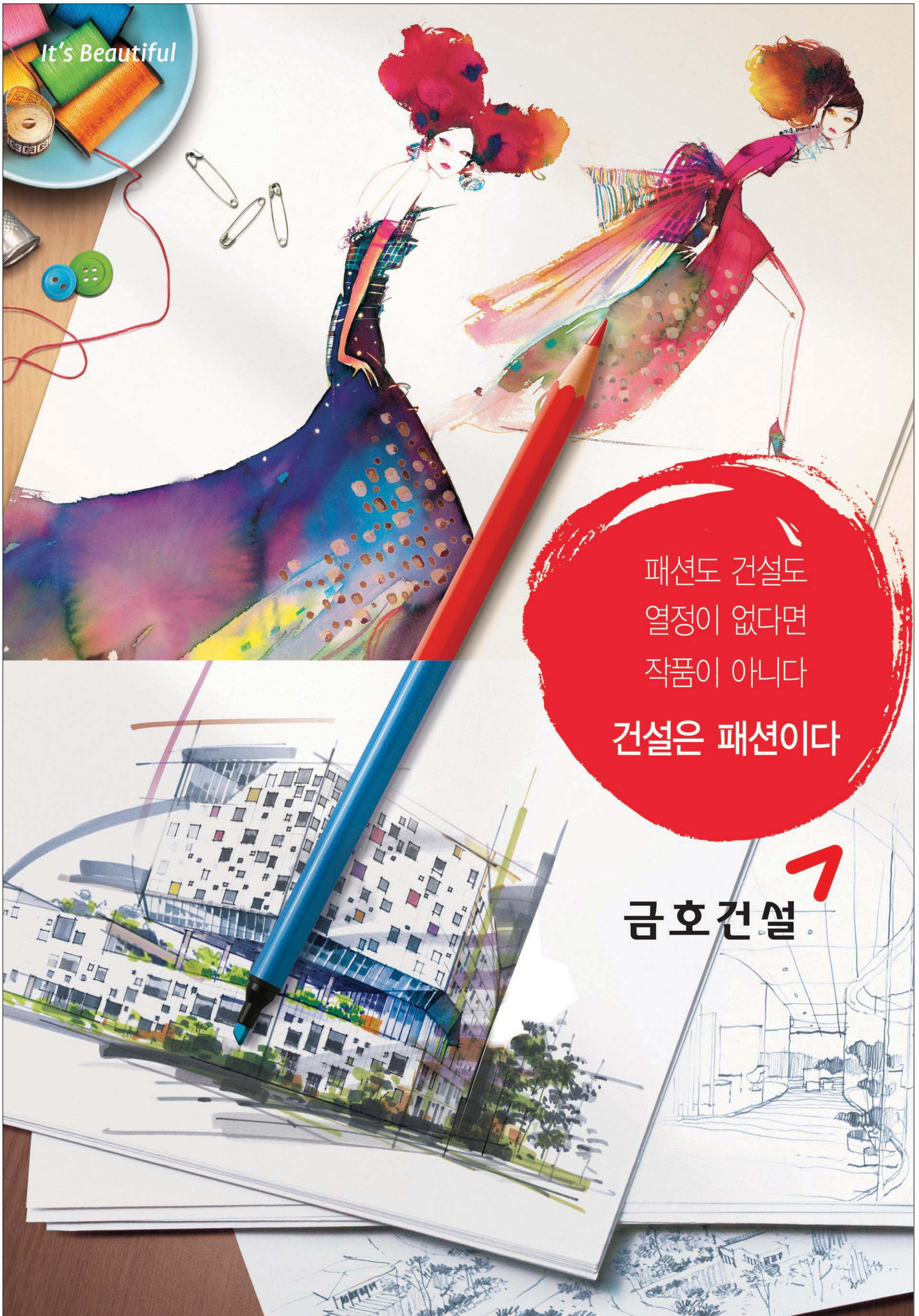


400만 하이패스 운전자는 친환경 녹색 운동가

우리나라 차량 대수 4대 중 1대는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차량 2대 중 1대는 하이패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놀라운 기록입니다
400만 하이패스 운전자 모두는 친환경 녹색 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경제도 환경도 시간도 이익, 하이패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i-pass
한국도로공사



It's Beautiful

패션도 건설도
열정이 없다면
작품이 아니다
건설은 패션이다

금호건설